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분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具 어 진

2016年 2月

#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분석

指導教授 安 成 洙

具 어 진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具어진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員 \_\_\_\_\_ (인)

委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5年 12月

# An Analysis of Woman's Image in Park Wanseo's Novels

Ku, Eo-jin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5. 12.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분석

구 어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연구는 문학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작중 인물을 통해 간접 체험 및 자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며 착안하였다. 그리고 작중 인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인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 작품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박완서 소설의 여성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기 방식은 다르지만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통해 주체적 실존의식을 확보하고 진정한 삶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박완서는 성별화된 주체로서의 여성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여성을 자주적으로 생각할 힘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하였다.

연구에서는 작가가 표현한 여성을 다시 전쟁 체험 세대와 산업화 사회를 살아가는 어머니와 딸, 중년여성으로 나누어 그들이 겪은 갈등과 모순, 바람직한 삶의 모색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 분석의 틀을 인식, 조용, 초월적 상상력으로 삼아 분석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삶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문학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박완서 소설을 여성문학으로서의 의미, 자전소설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그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개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쟁에 대한 기술은 남겨진 여성들의 비극과 전쟁이 가져온 삶의 황폐화를 담담히 그려냄으로써 전쟁의 실상을 더욱 실감나고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삶에 주목하여 각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와 딸, 중년 여성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분석은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여성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통시적 관점의 여성상 변모 과정 고찰은 오늘날 여성상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여성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물과의 동일시를 경험함으로써 문학적 소통과정의 교육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	5
II. 여성의 정체성과 진정성 찾기 .....	8
1. 전쟁 체험기의 모녀상 .....	8
1) 실존의식의 상실과 탐색 .....	10
(1) 가부장적 가치관과 실존의식 상실 .....	11
(2) 자기부정과 실존적 삶의 욕망 .....	14
2) 정체성 탐색과 세계 인식 .....	26
(1) 부성과 모성 공존의 정체성 .....	27
(2) 성장기 정체성 형성과 세계인식 .....	34
3) 모성애의 집착과 한의 극복 .....	43
(1) 모성애의 집착과 한의 생성 .....	44
(2) 한의 인식과 극복 의지 .....	50
2. 산업화 시대의 중년 여성상 .....	53
1) 삶의 진정성 회복에 대한 소망 .....	55
(1) 물질주의와 인간성 상실 .....	55
(2) 진정한 삶의 의미 자각 .....	59
2)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정체성 찾기 .....	60
(1) 남아선호사상과 정체성 혼란 .....	62
(2) 생명주의적 인식과 정체성 찾기 .....	66
III. 자전적 여성문학으로서의 의의 .....	71
1. 여성문학으로서의 의미 .....	71
2. 자전소설로서의 가치 .....	74
IV. 결론 .....	77
<참고문헌> .....	81
<Abstract> .....	84

# I. 서론

## 1. 연구 목적

교육 현장에서 소설 교육은 작중인물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때 작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작중인물을 통해 제시하고, 독자들은 작중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며 동일시(identification)를 경험한다. 이러한 문학적 소통과정을 통해 청소년기 학습자는 다양한 군상의 인물을 균형 있게 접하고 사회적 규범 습득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소통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중인물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여성상(女性像)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성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하지만 남성의 시선에 의한 남성중심 서사에 익숙했던 종래의 작품들 속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억압 받고 구속된 여성으로서 ‘억압된 여성상’<sup>1)</sup>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였다.

그러나 여성작가인 박완서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남성 위주의 전쟁과 산업화 시대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억압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를 개성 있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여자들의 말 많고 탈 많으며 밑도 끝도 없기 쉬운, 그러나 엄연하게 삶을 받쳐주는 일상과 그 흠어지기 쉬운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보란 듯이 굳건하게 정착시켰다”<sup>2)</sup>는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언급은 특유의 수다스런 문체로 사소한 일상 담론을 논하면서 여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박완서의 글쓰기가 기존 남성 중심의 문학장에서 여성적인 차별화 전략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1) 정미숙, 『한국여성소설연구입문』, 태학사, 2002, pp.16~17 참조.

2) 최경희, 『어머니의 법과 이름으로 『엄마의 말뚝, 상징구조』, 이경호, 권명아 역, 『박완서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p.168.



박완서 소설의 여성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구세대인 엄마의 삶이다. 이들은 타고난 모성으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한편 가부장적 인습에 얽매어 남성적 존재를 중시함으로써 아들에게는 남성우월의식을, 딸에게는 남성의 지배에 있을 것을 가르치는 한계를 보인다. 그 결과 부성부재의 상황에서는 삶의 방향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는 아직은 미성숙한 성장기 딸들의 삶이다. 이들은 구세대인 어머니 또는 세계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만 결국 갈등을 극복하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와 달리 신교육을 받은 딸들은 그의 소설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들의 삶이다. 이들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일상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반성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속물적 세상과 인간성 상실, 인간 관계의 단절 등 삶의 허무를 깨닫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에 이른다. 더불어 생명주의적 인식과 주체적 실존의식을 자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녀 관계에서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중년 여성의 삶은 그녀의 소설 곳곳에서 다양한 삶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삶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공존해 나간다.

그리고 박완서가 위의 여성 인물들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주안점은 ‘사소한 일상’을 통해 여성의 내면세계와 정체성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층위의 인물들을 통해 여성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비록 여성 중심의 서사이지만 ‘여성의 성장’이라는 일면적인 시선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여성 자아의 인식을 확고히 가졌던 박완서 소설에는 전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와 정체성 혼란, 실존적 삶의 욕망과 진정성 회복, 생명에 대한 외경심 추구 등 다양한 층위의 여성이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문제와 여성적 자아를 다룬 박완서 소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성이 자주적으로 생각할 힘을 가진 존재라는 시각으로 여자를 그린 것은 아마도 제가 최초가 아닐까”<sup>3)</sup>라는 작가적 자긍심으로도 표현된 바 있다. 이처럼 박완서

3) 최재봉,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작가 인터뷰」, 이경호, 권명아 역(2000), op. cit., p.41.

소설 속에는 성별화된 주체로서의 여성 자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로써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을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여성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고려하여 여성상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상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통시적 파악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현대 여성상에 대한 타당성을 획득하게 하고 여성상 변모과정에 대한 비평적 안목도 기르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여성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인물과의 동일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학적 소통과정의 교육적 기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박완서(1931-2011)는 1970년 마흔의 나이로 『여성동아』에 『나목』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이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며 15편의 장편소설과 100여 편이 넘는 단편소설, 11권의 산문집, 기행문과 동화 창작 등 문학의 장르를 넘어선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박완서가 타계한 이후에도 그녀의 소설에 대한 비평이나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대 여성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성 문제를 주로 다룬 박완서의 소설에 대한 논의도 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였고 이는 대중들의 호응을 얻

었다. 그리고 여성담론이 떠오르면서 박완서의 여성주의적 비평과 그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과 연구는 한국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도 관계된다. 그녀가 표현한 여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 여성이 처한 다양한 현실을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나아가 근대성에 대한 논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여성상에 나타나는 모성성과 생명주의에 대한 주제 분석 또한 이루어졌다.<sup>4)</sup>

먼저 안남연<sup>5)</sup>은 박완서 작품에 나타나는 부정적 여성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나무』, 『엄마의 말뚝 2』 등에서는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기 보다는 가난과 버거움만으로 점철된 여성상만이 나타난다고 말하며, 대등하게 남성사회에서 어깨를 겨루는 여성상을 박완서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옥희<sup>6)</sup>는 박완서를 그간 남성적인 권위와 검열의 시선에서 우회하여 중심담론에서 주변화되고 가려졌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른 감각으로 발굴하였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박완서가 작품에서 급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 화해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부장제적 시선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배경열<sup>7)</sup>은 박완서의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중년 여성들이 위기감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탐색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박완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뿐 아니라, 그 허위의식을 끌어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을 말한다고 하였다.

정호웅<sup>8)</sup>은 박완서 문학이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 현실에 대한 성찰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한 가족사와 상처, 치유과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쟁체험이 개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광호<sup>9)</sup>는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박완서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하

4)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p.2.

5) 안남연, 「박완서 소설의 여성성」, 『한국문예비평연구(제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8.

6) 임옥희, 「이야기꾼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작가세계(통권 제47호), 2000. 11.

7) 배경열, 「여성의 정체성 찾기-박완서 작품론」, 한국학논집(제34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8)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박완서문학의 6·25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세계(통권 제8호), 1991.

고 억압된 여성을 들추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비판이 나아가 생명 존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박완서의 여성상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성의 정체성과 유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여성상을 밝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논의들은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을 논하는 데 있어 시대적 상황을 간과하거나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상을 논하는 모순을 보이는가하면 분석의 가치중립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한계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시대 상황에 따른 여성상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에 있어 다시 신·구로 대표되는 어머니와 딸, 중년 여성으로 나누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접근하지 않은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박완서 문학의 효용성을 밝혀내고 실제 수업 적용 방안을 고찰해봄으로써 연구의 당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문학의 교육적 효과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3. 연구 방법

고등학교 14종 문학교과서를 비롯한 개정 7차 국어교과서의 작품을 살펴보면, 남성 작가의 작품 수에 비해 여성 작가의 작품 수록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꾸준히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여성 작가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작가 박완서이다. 이는 박완서 작품의 문학교육적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9) 이광호, 「여성에 대한 물음과 소설쓰기-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 『위반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기준으로 박완서 소설의 여성상을 밝혀내는 데 목표를 둔다. 연구의 범위는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최근 3년간 14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박완서의 작품 중 가장 빈도수가 많고 여성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으로 한정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박완서의 소설은 『엄마의 말뚝 2』, 『나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우황청심환』, 『꿈꾸는 인큐베이터』, 『아저씨의 훈장』, 『해산바가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8편이 된다. 이 중에서 여성 인물의 비중이 약한 『우황청심환』, 『아저씨의 훈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작품을 연구 텍스트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장편소설 『나무』과 자전적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 2』, 단편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 『해산바가지』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

선정된 6개의 텍스트는 다시 전쟁을 체험한 어머니와 딸의 삶,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여성의 삶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각 시대 속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갈등과 모순을 겪었는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삶을 영위해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갔는지 등 여성상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해낸 여성상을 바탕으로 자전적 여성문학으로서의 의의와 교육적 가치를 밝혀내고, 실제 수업 적용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때 문학적 상상력을 분석의 틀로 삼아 박완서가 작품 속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sup>10)</sup>의 단계는 문학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형태화, 개념화함으로써 내용 추출

10) 프라이(N.Frye:1912~1991)는 상상력을 이성의 요소와 정서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구성적 능력으로 파악한다. 이 구성적 능력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행위규명의 표준을 정하는 능력인, 과학적 인식의 능력과 대립적인 뜻을 갖는다. 상상력의 핵심은 현실원칙을 초월하는 ‘의미의 구성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상상력을 구성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상상력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첫째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고, 인식을 통해 발견된 세계의 실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계와 조정작용을 한다. 그리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지향적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보다는 이상적 세계와 더 관련이 깊다. 언어와 상상력의 관계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상력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인식적 상상력(imagination of awareness)으로 세계에 대한 형식과 기능, 문학을 통한 세계 개시(開示)의 능력, ② 조율적 상상력(imagination of world ordering)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 기능, 문학을 통한 세계와 상호조정 작용, ③ 초월적 상상력(imagination of world making)으로 가능한 모델 창조의 기능, 세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일, 즉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구인환 외,

이 이루어지는 인식적 상상력, 세계비판의 문제와 관련되는 구성적 능력으로 현실을 조명해 보는 비판적 성격의 조용적 상상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초월하여 이상세계를 지향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상과 연결시켜 교육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초월적 상상력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단계를 통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인물의 행동 양식에 대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비판적 고찰의 시작점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학습자들이 여성 인물과 동일시를 겪으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pp.48~49 참조.

## II. 여성의 정체성과 진정성 찾기

### 1. 전쟁 체험기의 모녀상

한국 사회에서 6·25 전쟁은 체험세대는 물론 후손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비극을 남겼다. 전쟁은 좁게는 한 가정을, 넓게는 사회 전체의 삶을 파괴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남성의 죽음과 극심한 가난 등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남은 가정을 챙겨야 하는 것은 여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질곡은 남겨진 여성들에게 고통의 상처와 한을 형성하였다. 전쟁으로 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한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여성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러한 정서는 전쟁 체험을 한 모든 한국 여성들에게 보편적 인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1970년대 들어와 분단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그 극복 의지를 그린 작품들이 왕성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장기에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이 이 시기 들어서 자기의 체험을 회고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정신적 연령에 이르렀고,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6·25 전쟁에 대한 천착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감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완서 역시 가족 해체와 같은 개인적 체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쟁의 상흔과 질곡을 담고 있는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박완서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었던 오빠의 죽음은 6·25 전쟁이 안겨준 최대의 비극이었고, 나아가 소설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때문에 그의 소설 속에는 가족사의 비극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6·25는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놨어요. 학업을 잇지도 못하게 했고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했죠. 전쟁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에 놓인다는 것은 폭정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지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오빠와 남매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아껴주었는데 오빠가 죽고 빨갱이로 몰리는 수모와 굴욕을 당하고 밑바닥까지 가는 가난을 겪을 때 나는 이 전쟁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들,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언젠가는 소설로 갚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요. 그것은 그런 수모와 굴욕 속에서 최소한 자존심을 구하기 위한 자위 행위기도 했습니다.<sup>11)</sup>

박완서는 6·25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대한 정치적 서술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가정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자의 비극성에 주목한다. 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여성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약자가 겪어야 했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비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소설의 바탕에 박완서의 개인적 체험이 있기에 자전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그녀의 소설은 사회적 측면까지 그 의미 확장을 이룬다.

이때 전쟁의 상처와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른 비극은 가족 중에서도 주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통해 형상화된다. 일반적으로 딸은 어머니와 비슷하게 닮아감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한편 어머니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적대감도 함축하기 쉽다. 그러나 딸은 이러한 이중감정의 단계를 극복하고 난 뒤 어머니에 대해 보다 긴밀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딸과 공생관계를 재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계속 순환되는 것으로 딸이 갖는 동일시와 적대감의 이중감정은 역설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들 역시 관계적이고 순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어머니와 딸’로 형상화되는 이들은 끊임없이 공생과 융합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이는 박완서의 개인적 체험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로서 형태를 취한다.<sup>12)</sup>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으로 인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나의 오빠인 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각기 달리 나타난다. 모성적 사랑과 가부장적 가치관이 결합된 어머니와 전쟁의 공포와 삶에 대한 딸의 욕망이 결합된 갈등이기 때문이다.

11) 조선희, 『바스라지는 것들에 대한 연인』, 권영민 외, 『박완서論』, 삼인행, 1991, p.10.

12) 오세은, 『박완서 소설속의 ‘어머니와 딸’ 모티프』,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p.221.



이에 하나의 전쟁을 두고 어머니와 딸은 대립과 불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런 모녀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여성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의 될 작품은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 2』이다.

#### 1) 실존의식의 상실과 탐색

박완서의 등단작 『나목』(1970)은 작가의 실제 경험에 소설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한 소설이다. 전쟁을 앞두고 죽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전쟁 중 폭격으로 죽은 오빠들에 대한 죄책감, 삶의 의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애증, 가족 안에 자기가 없다는 허탈감, 옥희도와 사랑의 통한 탈출구의 모색과 좌절 등 갖 스무 살이 된 여성이 겪어 내기 힘든 사건과 사회·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주인공 이경의 삶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시대에 미 8군 PX 초상화부를 다니는 주인공 이경은 미군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환쟁이들 틈에서 새로 들어온 진짜 화가 옥희도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전쟁의 폭격으로 인해 두 아들을 잃고 삶의 의지마저 상실한 어머니, 오빠들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경은 옥희도와의 사랑을 통해 안식과 충족감을 얻고자 한다. 이경과 옥희도는 밤마다 명동 장난감 가게의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칩팬지를 바라보며 서로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옥희도는 초상화부에 나타나지 않았고 옥희도의 집을 찾아간 이경은 캔버스 위의 참담한 고목(枯木)을 보게 된다. 옥희도가 앓고 있는 심한 기갈을 고목을 통해 발견한 이경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자신을 궁지로 내몰며 미군 죠오와의 하룻밤을 선택한다.

그러나 시트가 핏빛으로 물드는 환각을 경험하며 비로소 오빠의 죽음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집에 가기 싫은 이경은 옥희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귀가 후 아픈 어머니를 발견하고 간호를 했지만 생의 의지가 없는 어머니는 결국 영원히 오빠들의 곁으로 간다. 장례를 도와준 태수의 형수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경은 태수와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 옥희도의 유작전에 가게 된다. 이경은 유작

전에서 지난 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것이 한발 속의 고목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음을 깨닫는다.

#### (1) 가부장적 가치관과 실존의식 상실

『나목』에서 어머니는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된다. 비록 가장인 남편과 사별하였지만 곧장 남성의 지위를 아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부성부재의 상태를 아들을 통해 극복한다. 즉 어머니에게 아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근간이 되며,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존재로 작용한다. 따라서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는 든든한 아들의 존재로 인해 슬픔을 극복하고 흐트러짐 없는 삶을 보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으로 가부장적 가치관의 전형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당시대의 중요 패러다임을 추론할 수 있다.

사십구제에서 돌아오는 길은 즐거웠다. 오빠들은 흔히 하던 유쾌한 농담은 물론 삼가는 중이었지만, 상복을 벗고 신사복으로 갈아입어 장성한 준수한 청년임을 과시하며, 아직도 좀 멍하니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양쪽에서 정성껏 부축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부축이 여간 흡족하지 않으신 듯했다. (중략) 혁이 오빠가 어머니 뺨에 자기 뺨을 댔다. “에이 징그럽다. 다 큰 녀석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고운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 약간 잔 머리가 일어서 보이나 그래도 자연의 윤기를 지닌 검은 머리를 곱게 빗고, 윤곽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치아도 여진했다.<sup>13)</sup>

그러나 전쟁으로 두 아들이 모두 목숨을 잃자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삶의 의지마저 체념한다. 이러한 상황은 어머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까지 빼앗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즉 두 아들을 상실한 데 대한 깊은 한(恨)은 기쁨 있는 어머니에서의 치도 빼 놓은 채 산 송장 같은 어머니로 황폐화시키고 어머니 자신의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13) 박완서, 『나목』, 작가정신, 1990, pp.215~216.

어머니가 별로 소리도 내지 않고 한껏 느릿느릿 수저를 놀리면서 의치를 빼 놓은 호물때기 입을 이상한 모양으로 우물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저주 받은 의무로 느껴져 나는 미처 배가 부르기도 전에 식욕부터 가졌다. 나는 먼저 수저를 놓고 어머니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왈각 왈각 치미는 혐오감을 되새김질했다. 나는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우선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연 회색이 미웠다. 백발에 듬성듬성 검은 머리가 공상맛게 섞여서 머리도 회색으로 보였고 입은 옷도 늘 저들은 행주처럼 지쳐 빠진 회색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회색빛 고집이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노라는 생활태도에서 추호도 물러서려 들지 않는 그 무섭도록 단단한 고집. 나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사는 것을 재미나 하고픈, 다채로운 욕망들은 이 완강한 고집 앞에 지쳐가고 있었다.<sup>14)</sup>

여기서 한의 개념을 살펴보면, 좌절과 상실을 당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외향적 공격성(怨)이 한의 일차적 정서 현상이요, 뒤이어 무력한 자아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하는 내향적 공격성(嘆)이 이차적 정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향적·내향적 공격성이 ‘한국적 한’의 기점이 되고 있다. 한은 좌절과 상실을 가져온 그 유인자에 대한 대타적 공격성이 우선 강렬하게 표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좌절, 상실에 빠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자탄의 감정, 즉 대자적 공격성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한의 정서는 이처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원한과 한탄이 상위 개념으로서의 한의 기본 속성이라면 원한과 한탄 이후에 오는 체념의 정서는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한국적 한의 속성이다. 이러한 체념의 정서는 일종의 체념주의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한국적 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퇴영적 자폐성, 한국적 허무주의, 패배주의 등은 이러한 체념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나타난다.<sup>15)</sup>

두 아들을 잃은 뒤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의지를 체념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바로 이러한 한국적 한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것도 생각 않는 완전한 허(虛)’의 상태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완전한 삶에 대한 거부상태인 것이다.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고 삶의 의지를 체념한 모습은 깊은 한의

14) Ibid., p.17.

15)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태학사, 1993, pp.14~23 참조.

산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존재에 삶의 의미를 두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조용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주체적 실존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시대가 낳은 한계이자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비판할 수 있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나와서 문을 열었다. 문득 어머니는 긴 낮 동안 무슨 생각으로 소일하였을지가 궁금해졌지만 묻지는 않았다. 나도 어머니의 대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아니 아무것도 -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무 것도 생각 않는 상태, 완전한 허(虛), 이런 걸 나는 짐작도 할 수 없다.<sup>16)</sup>

어머니의 눈에는 다시는 어떤 느낌이 담기지는 않았다. 부우연 눈이 다만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삶을 거부하고 있었다.<sup>17)</sup>

한편 가부장적 가치관은 급기야 왜곡된 모성을 낳기에 이른다. 두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의 의식 속에 이 집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없다. 아들에 대한 슬픔에 깊이 침잠하여 살아 있는 딸의 슬픔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밤늦게 귀가하는 딸에 대한 기다림조차 잊은 채 과거 속에 존재하는 죽은 오빠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현실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딸 이경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 이로써 어머니와 딸은 아들이자, 오빠를 잃은 슬픔에 대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으로 한순간 한 가정의 파국을 가져온 전쟁의 비극성뿐 아니라 여성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가부장적 가치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체념한 이상 어머니는 여성 자체의 존재를 허무하게 하고 절규하게 한다. 어머니이기 이전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부재가 곧 세상의 끝이라는 의식은 주체적 실존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조용적 상상력을 통

---

16) 박완서(1990), op. cit., p.166.

17) Ibid., p.233.

해 비판할 수 있다.

실존은 기존의 이론, 신학, 사회, 과학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실존주의자들은 말한다. 사람은 자기가 성취하는 바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자유롭다. 이 자유에 의하여 사람은 남이 자기를 규정하려 드는 것을 완강히 뿌리치고 자기를 스스로 정립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자유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해야 한다.<sup>18)</sup>

그러나 어머니는 온전히 한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립과 자유의지를 거부하고 아들에게 삶의 의미를 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어머니의 삶을 규정해버린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아들의 죽음은 곧 본인의 실존에 무의미함을 가져온다. 이는 가부장 가치관이 낳은 여성상의 비극이자 정체성 상실이라 할 수 있다.

## (2) 자기부정과 실존적 삶의 욕망

어린 아이도 성숙한 여인도 아닌 혼란의 사춘기, 한국과 미국 문화가 혼합된 PX, 삶과 죽음이 뒤섞인 전쟁터 등의 환경은 이경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경은 어느 세계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주변부에서 방황한다. 이런 혼란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과 육체적 보호를 제공했던 최초의 원천을 찾게 되는데, 이때 믿음의 존재로부터 거부당할 경우 기본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 신뢰를 상실할 경우 기본적 자존감의 상실로까지 이어져 정체성, 주도성, 자율성, 친밀감 등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sup>19)</sup>

이경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자 혼란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아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삶의 의지를 체념한 회색빛 세상일 뿐이다. 죽은 오빠에 대한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설날에도 밥상에 김치국만 올려주는 무관심한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 관계에 놓이면서 이경은 자신이 갖는 삶의 욕망에 좌절과 비참함을 느낀다. 이경에게 설에 만두를 먹는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오빠들이 살아 있을 때처럼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바람이자 어머니의 변화이며 싱싱한 생기에 대한 확인이고 나아가 삶에 대한

18)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2001. p.211.

19) 최지선, 『박완서 장편소설 나목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pp.26~27 참조.

욕망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은 회색빛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 이경이 가질 수 없는 부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변화는 생기를 줘요. 엄마, 난 생각에 굶주리고 있어요. 엄마가 밥을 만두로 바꿔만 줘도라도……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쉽고 작은 일이 딸에게 싱싱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걸 엄마 왜 몰라요?” 어머니의 부우연 시선이 아무런 뜻도 지니지 않은 채 나를 보는지 내 어깨 너머로 윗목의 장롱을 보는지 초점 없이 한 군데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내 어머니가 다만 나에게 잡힌 치맛자락을 놔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란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또한 내 바람이 완강하게 거부당하고 있음도, 그 거부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도 알아차렸다.<sup>20)</sup>

오빠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울증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는 곧 이경의 증오 대상이 된다. 이경은 자신까지 지배하는 어머니의 회색빛에 대해 “갑자기 빛깔에 대한 견잡을 수 없는 갈망”<sup>21)</sup>을 느끼며 알록달록한 색색의 한복을 입고 거리로 나가 자신을 좋아하는 태수를 만난다. 또한 ‘맛난 것 만들기 선수’<sup>22)</sup>였던 과거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꿈꾼다.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이경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살아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 -어둠보다는 밝음, 슬픔보다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추구-과 이를 즐기고 싶어 하는 자아를 추구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경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게 된다. “반드시 어둠 속에서 부우연 하늘을 이고 섰어야 하는 우리집. 그 앞에서 내가 누리는 일종의 외경과도 통하는 공포. 나의 하루의 초점이 그 순간에 있고 나는 그것을 추호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sup>23)</sup>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경 역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어머니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경의 건강한 자아 찾기는 매번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가없는 나의 엄마. 엄마가 그런 걸 보셨다니.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

20) 박완서(1990), op. cit., p.97.

21) Ibid., p.97.

22) Ibid., p.104.

23) Ibid., p.105.

을 줄이야. 그렇지만 엄마,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 드리겠어요. 오빠들 뭉까지 효도를 하고 말고요.” (중략)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게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부스스 돌아 눕더니 휴 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 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셨노.”<sup>24)</sup>

그리고 이경은 부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어머니가 내뿜은 ‘원성과도 같은, 주문(呪文)과도 같은’ 끔찍한 한 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함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경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가치 없는 딸이자 필요 없는 여성임을 자각하게 된다. 여성으로서의 한계 인식은 정체성에 혼란과 자기부정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때문에 이경은 “어머니를, 지금의 내가 비참한 것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비참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어머니를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도록 해 줘야지. 자식이라고는 없는, 딸도 없는 불쌍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어야지”<sup>25)</sup>라는 복수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딸의 늦은 귀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이경은 연민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 분노는 과거 오빠들이 살아있던 시절 행복했던 삶에 대한 회구이자 살아남은 자로서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다. 마침내 이경은 오빠의 기타를 부숨으로써 죽지못해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지만 오히려 20년은 젊어진 듯한 힘으로 달려드는 어머니를 확인하고 더욱 좌절한다. 비록 오빠들은 죽었지만 살아남은 자신이 엄마에게 위안이 되고, 과거의 행복과는 다를지라도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엄마에게 이경은 어쩌다 살아남은 계집애일 뿐, 그 어떤 의미도 아닌 것이다. 이로써 이경은 한 번 더 자기 존재감에 위협을 받게 된다.

“안방에 앉았으려니까 글썽 건넌방에서 기타 소리가 나지 않겠니? 꼭 육이가 치는 것 같더라.” “그건 회오리바람 소리였단 말예요. 난 그 눈보라 속을 얼어 죽을 뻔해

24) Ibid., pp.229~230.

25) Ibid., p.231.



가며 걸어왔단 말예요. 이 기타 소리가 아니었던 말예요.” 나는 “말예요”“말예요”에 힘을 주다 못해 그만 기타를 쳐들고 방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산산히 부수고 싶은 광폭한 충동을 느꼈다. “이놈의 기타 소리가 아니었던 말예요.” 드디어 나는 기타를 높이 쳐들었다. “안 된다. 안 돼!” 불안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십 년은 젊어진 듯 쫓겨 울리더니 기타를 빼앗으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중략) 우리 모녀는 기타를 사이에 놓고 미친 듯이 방바닥을 뒹굴고 짐승처럼 싸근대며 자신의 욕신을 돌보지 않고 처절한 싸움을 했다. 한참만에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긴 쪽은 어머니였다. 모처럼 시도해 본 과거와의 단절은 이렇게 해서 수포로 돌아갔다.<sup>26)</sup>

이처럼 오빠의 죽음이 가져 온 가정의 해체는 어머니와 이경의 관계를 결합에서 분리의 상태로 전환시킨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는 딸에게 전범으로서 동일시의 대상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경에게 어머니는 자신을 생성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로도 작용한다. 또 행복했던 과거를 제공했던 존재이자 현재의 불행과 적의를 제공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은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즉 이경은 어머니를 부정하는 한편, 어머니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양가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sup>27)</sup> 이 양가성은 외상의 근원인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동일시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와 소통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공존시킨다.

이 양가성 속에서 이경은 과거 자신에게 애정을 베풀고 평온한 안식을 제공했던 어머니의 복원을 꿈꾼다. 어머니와의 화해가 곧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이경의 내면에는 변화에 대한 열망,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부정당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이경의 일방적인 행위에 그치고 만다.<sup>28)</sup> 이로써 어머니와의 화해와 소통은 실패한 채 모녀는 더욱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훈훈해진 김에 그녀와 더불어 나도 빈자떡을 살 것 같은 예

26) Ibid., pp.91~92.

27) 정해진, 『박완서 소설 연구-전쟁 체험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p.15.

28) 최지선(2008), op. cit., pp.22~23 참조.



감이 들었다. 어머니도 빈자떡을 좋아했던 것 같다. (중략) “엄마 빈자떡.” 나는 불쑥 그것을 내밀었다. “식기 전에 잡춰 보셔요. 식을까봐 가슴에 품고 왔어요.” 이번에는 말로 설마 어머니의 눈빛이 무슨 뜻을 지녀 오겠지 기대하며 주시했다. 어머니는 시들하게 받아 놓고 습관화된 땀 일을 시작했다. 국을 데우고 상에다 수저와 그릇들을 올려놓고. 어머니의 눈은 결코 땀 뜻을 지니지 않았다.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는 완강한 고집 외에는.<sup>29)</sup>

이경은 어머니로 인해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를 반복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겨우 삶을 이어 간다. 자기 파멸의지와 은행나무나 청량한 하늘처럼 푸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존 욕망 사이에서 이경의 내면은 무질서한 상태를 헤맨다. 급기야 오빠의 죽음으로 비롯된 모든 불행에 억울함을 느끼고 전쟁이 계속되기를 저주하는 인간성의 황폐함을 보이다가도 전쟁에 공포를 느끼는 등 정체성 혼란의 극치를 보인다. 이러한 이경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 관점에서 어머니로부터 부정 받은 이경이 아직은 미성숙한 자아 정체성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어머니의 왜곡된 가부장적 가치관과 전쟁의 비극에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는 너무도 곱게 물들었고 하늘은 어찌면 저렇게 푸르고 이 마당의 공기는 생물처럼 청량하기만 한 것일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문득 전쟁이나 다시 휩쓸었으면 싶었다. 오빠들이 죽은 후에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죽은 후에도 타인의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다시 전쟁이 물려왔으면 - 지금의 나는 전쟁에 의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비롯된 내 전쟁에 대한 갈망은 하루하루 그 열도를 더해갔다. 전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으면.<sup>30)</sup>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걸. 전쟁은 누구에게나 재난을 끌고루 나누어 주고야 끝나리라. 절대로 나만을, 혁이나 욕이 오

29) 박완서(1990), op. cit., pp.189~191.

30) Ibid., pp.231~232.

빠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거의 광적이고 양갈진 이런 열망과 또 문득 덮쳐 오는 전쟁에 대한 유별난 공포. 나는 늘 이런 모순에 자신을 찢기우고 시달려, 균형을 잃고 피곤했다.<sup>31)</sup>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쟁이 몇 번이고 되풀이될 테고 그 사이에 전쟁은 사람들에게 재난을 골고루 나누리라고. 나는 다만 재난의 분배를 먼저 받았을 뿐이라고.<sup>32)</sup>

결국 이경은 자기부정과 삶의 욕망이라는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환쟁이라 일컫는 진짜 화가 옥희도와 사랑을 통해 실존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자 한다. 예술이 아닌 생계를 위한 그림을 그리며 깊은 황량감에 빠져 있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 생각되는 옥희도를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상처와 근원적 고독을 구원받고자 한 것이다. 즉 옥희도와의 사랑과 이로 인한 설렘, 살아있는 감정 등은 이경을 생동하게 하고 이는 회색빛 어머니로부터 탈출구가 된다.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 속에 감추어진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지치지 않고 깊이 도사려 있으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벌 속에 있다는 것에 아랑곳없이 가끔 나와는 별개의 개체처럼 생동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일 게다. 그리고 보니 옥희도씨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구원일까. 그를 못 만났다면 지금쯤 어찌면 나는 정말 지쳐서 허물어져 있을지도 모른다.<sup>33)</sup>

이경과 옥희도는 서로를 통해 존재 확인의 열망을 꿈꾸며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태엽을 감으면 몸을 흔들며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칩팬지 인형을 통해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엽의 감김 정도에 따라 움직이는 칩팬지를 보면서 이경과 옥희도는 서로의 고독과 절망을 발견하고 이 감정은 서로 도울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태엽의 한정된 시간

---

31) Ibid., p.38.

32) Ibid., p.48.

33) Ibid., p.139.

은 이경과 옥희도의 관계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상징한다.

드디어 태엽이 풀리면서 칠판지의 동작은 서서히 느려지고 유쾌한 애주가의 폭음은 부스스 멎었다. 구경꾼들은 하나 둘 비어 갔다. 흥겨운 시간은 삼시간에 지난 것이다. 칠판지만이 사람들에게 아침 떨기를 멈추고 한껏 외롭게 서 있었다. 그의 고독이 가슴에 몽클 왔다. 사람과 동물로부터 함께 소외된 길은 고독과 절망. 나는 옥희도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하염없이 화필을 놓고 잣빛 휘장을 바라볼 때처럼 그런 시선으로 칠판지를 보고 있었다. 문득 나는 그도 역시 칠판지의 고독을 앓고 있음을 짐작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도울 수 없음을, 좀 전의 충족감이 포말처럼 꺼졌다. 나는 그에게서 소리 없이 밀려나 있었다. 칠판지와 옥희도와 나……, 각각 제 나름의 차원이 다른 고독을, 서로 나눌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자기만의 고독을 앓고 있음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sup>34)</sup>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짜인 동작을 해야 하는 칠판지의 모습은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경과 옥희도의 모습을 대변한다. 그러나 옥희도는 이경을 통해 생의 에너지를 얻고, 또 칠판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고찰하게 된다. 마침내 옥희도는 자신이 진정한 예술가이었음을 인식하고 화가로서 진짜 그림을 그릴 것을 다짐한다. 이후 옥희도는 더 이상 초상화부에 나타나지 않았고, 옥희도의 동반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미성숙한 이경은 옥희도와 함께 한 황홀한 시간들을 환각이라 여기며 좌절감을 느낀다.

“나도 경아도 칠판지가 돼 가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 “어떻게 진화가 거꾸로 됐네요.” “글쎄 말이야. 그놈이 태엽만 틀면 술을 마시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더니만 점점 시들하고 역겨워지기까지 하더군. 그 놈도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는 눈치였어. 그래서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게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엽만 틀면 그 시시한 율동을 안 할 수 없고…… 한 없이 권태로운 반복, 우리하고 같잖아. 경아는 달려 냄새만 맡으면 그 슬픈 ‘부로큰 잉글리쉬’를 지껄이고 나는 달려 냄새에 그 똑같은 잡종의 쌍판을 그리고 또 그리고.” 그는 몸을 떨었다. 이제 그는 나 때문에 떨고 있지는 않았다. 성당 앞까지 왔다. “사람이고 싶어. 내가 사람이라는 확인을 하고

34) Ibid., pp.65~66.

싶어.” (중략)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어. 미치도록 그리고 싶어. 정진과 몰두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sup>35)</sup>

한편 예술로부터 구원받은 옥희도와 달리 이경은 옥희도의 그림에서 고목을 발견하고 여전히 황량한 공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옥희도의 부재와 고목에서 느낀 괴리감은 이경으로 하여금 일탈을 충돌시킬한다. 그리고 언제나 딸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머니와 화합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삶의 욕망에 대한 혼돈은 마침내 조오와의 잠자리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조오 역시 낯선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신과 육체의 욕망 결핍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경처럼 온전히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경은 조오와의 하룻밤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공범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경은 조오에 의해 옷이 벗겨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군더더기의 나까지 벗겨지기를 원한다. 이경은 적극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꾀하며 정체성 찾기와 삶의 욕망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이경은 진실한 나와 대면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되찾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분노, 오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떨쳐내고자 한다. 이러한 재생을 위해서 기존의 자신을 벗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오와의 하룻밤은 지금까지의 이경의 죽음이자 그녀의 새로운 재생을 상징한다. 이러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은 인물의 실존적 삶을 추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비로소 정체성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경이 선택한 조오와의 하룻밤은 스스로를 훼손시키는, 자기 파괴의 욕구로도 볼 수 있다. 이경은 자신을 훼손시킴으로써 어머니가 지닌 봉건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질서를 부정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sup>36)</sup>

이러한 이경의 삶의 방식을 조용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경은 부정당한 자기 존재와 이로 인한 내면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옥희도와의 사랑, 조오와 하룻밤 정사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통과의례는 침체된 일상적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나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

35) Ibid., pp.173~174.

36) 최지선(2008), op. cit., pp.35~38 참조.

으려는 욕구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이 유년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보다 긴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유년의 체험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순간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이 강조된다. 성인이 된 후에 겪는 사랑이나 성관계, 결혼의 문제가 자아 정체성의 자각에 더욱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으면서 비로소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적이나 최종 도달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일반적인 여성들의 통과의례처럼 이경이 선택한 옥희도와와의 사랑, 조오와의 하룻밤 등은 역시 남성 의존적이며 찰나의 각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경으로 대변된 여성들은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정체성 형성과 자아 각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체험을 통해 주체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행위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를 통해 수많은 군더더기의 나를 벗기를 원하고 있었다. 때로는 나를 찢고, 때로는 내 뒤에 숨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제 나뉠름으로 요변하는 여러 개의 나를 벗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조오의 도움으로 나는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틀림없이 진짜 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를 통해 나는 내 영육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지러진 지붕을 대낮에도 볼 수 있었으면 싶었다. 똑바로 용마루를 꿰뚫은 구멍을 보고, 부서진 기왓장을 보고 싶었다. 미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조오는 내 육신의 의상을 벗기고 나는 그를 통해 영혼의 남루를 벗기를 꾀하고 있었다.<sup>38)</sup>

그러나 조오를 통해 자기부정의 혼돈에서 벗어나 정체성 찾기를 갈망하였던 이경은 스탠드 불빛으로 침대 시트가 핏빛으로 물들자, 그녀는 자신의 육신이 오빠들의 육신처럼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날 것 같다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오빠들의 죽음이 내 탓이라는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이경은 행랑방 벽장에 오빠들을 숨기자는 제안을 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애써 망각하고 회피해 왔는데, 잠재된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sup>39)</sup> 즉, 이경은 망각하

37)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pp.281~282.

38) 박완서(1990), op. cit., p.206.

려고 애썼던 오빠들의 죽음에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자기 파괴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경은 자기 파괴의 순간에 자신의 진짜 내면과 욕망을 깨닫게 된다.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해 온 이경이 죽음에 대한 욕망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살고 싶다’라는 진정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스스로를 파멸시킴으로써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씻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의지를 깨달은 것이다.

나는 조오의 얼굴을 찾기 전에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침대 시트를 보았다. 핏빛 시트…… 핏빛 시트……。 오오 핏빛 시트……(중략) 나는 잊은 줄 알았던, 아니 교묘하게 피하던 어떤 기억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도망자처럼 체념하고 나는 그 기억을 맞아들였다. 어머니가 정성들여 다듬이질한 순백의 호청을 붉게 물들인 처참한 핏빛과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를. 얼마만큼 육체가 참담해지면 그 옛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극한을 보여주는 끔찍한 육신과, 그 육신이 한꺼번에 쏟아 놓은 아직도 뜨거운 선홍의 핏빛을 나는 본 것이다. (중략) 나는 방금 내가 느끼고 있는 위기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조오’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았다. 혁이 오빠와 육이 오빠의 육신처럼 시트를 붉게 물들이며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날 것 같았다. 도망쳐야지, 도망쳐야지.<sup>40)</sup>

이경은 오빠들의 죽음에 따른 죄책감과 이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고 마침내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 본격적으로 현실 속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 이는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이경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옥희도를 통한 가정의 복원 등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빠들의 죽음 역시 수용하게 된다. 이경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들은 모두 벗어나야 할 과거의 잔재들이었던 것이다.

39) 김지영, 『박완서 소설의 문학교육적 연구-1970~80년대 작품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18.

40) 박완서(1990), op. cit., pp.211~212.

그동안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이경의 시도는 계속 된 시행착오와 실패를 낳았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결국 단절되었고, 옥희도와 사랑 역시 불안정한 이경의 왜곡된 환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한 조오와의 하룻밤은 한시적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충동적인 것이었다. 이경은 이런 관계맺음의 시행착오 속에서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기 수용 과정을 겪음으로써 마침내 삶의 욕망을 찾게 된다.

이로써 이경은 성숙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경은 살아있음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감사함을, 과거에 대한 도피보다는 현재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꾸게 된다. 황태수와의 결혼은 현실적인 삶에 대한 추구라 볼 수 있다.<sup>41)</sup>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 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며,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맞추고 싶었다.<sup>42)</sup>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경은 옥희도의 유작전에서 과거에 ‘고목’이라 생각했던 나무가 겨울의 황량함 속에서 잠시 성장을 멈추었다가 어려운 한 시기를 극복해내고 봄을 기다리는 ‘나목’임을 인식하게 된다.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바로 봄에의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서 있는 ‘나목’으로 함축된다. 즉 절망과 고독, 황폐한 삶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나목’처럼 곧 희망의 봄을 맞이하는 것이다. 즉 생명성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경은 예술적 안목의 성숙과 함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41) 최지선(2008), op. cit., pp.41~46 참조.

42) 박완서(1990), op. cit., p.282.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중략) 봄에의 믿음-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리라. 나는 홀연히 옥희도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sup>43)</sup>

이경은 어머니에게 자기 존재에 대해 부정당하고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지독한 한밭(旱魃)의 땅’이라 생각하며 ‘서로 도울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자기만의 고목’으로 심하게 앓는다. 그러나 이경이 완전한 허(虛)의 지경에 떨어진 어머니처럼 고사한 나무 모양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경의 내면은 살아 온통 들끓고 있으니, 타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 전쟁이 계속되어 자기 가족에게 닥친 재난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닥칠 것을 바라는 악마적 저주, 죽고 싶다는 파괴적 충동과 전쟁의 손길을 벗어나 새롭고 화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등 온갖 욕망의 무질서한 혼돈으로 인해 심한 불균형 상태를 겪는다.<sup>44)</sup>

이에 이경은 옥희도와의 사랑을 통해 삶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과거의 단절을 통해 정체성 찾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의 삶을 선택한 옥희도와의 거리감은 이경을 다시 불안으로 몰아낸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내면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경은 삶의 욕망과 자기 파괴 욕망이 뒤섞인 채 미군병사 조오와의 하룻밤 정사를 선택한다. 하지만 핏빛 시트를 보며 오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고 이는 이경의 내면에 숨겨두었던 죄책감을 일깨워주는 삶의 위기이자 실존적 삶의 욕망을 깨닫는 성장의 계기로 다가온다. 이후 어머니의 죽음으로 대립관계가 소멸되고 태수와 결혼을 통해 현실적인 세계로 진입하여 마침내 과거에 본 고목이 나목이었음을 깨닫는다.

초월적 상상력 관점에서 이경의 삶을 정리해 본다면, 혼란스러운 자아와 파괴된 삶으로부터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실존 의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규정되지 않은 온전한 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되찾고, 생명성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봄에

43) Ibid., p.286.

44)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권영민 외(1991), op. cit., p.93.



대한 믿음, 생명력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삶의 진정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가져오는 것이다.

## 2) 정체성 탐색과 세계 인식

박완서는 박적골에서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서울로 입성한 후 갖은 고생 속에 자란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전쟁이 벌어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피폐한 전쟁 속에서 박완서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오빠를 잃는다. 특히 전향을 용서하지 않는 이 땅에서 전향자의 가족으로, 인민군 도망병의 가족으로, 남북 양 진영에 배척당하는 삶이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였다. 결국 오빠는 총상을 입고,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삶을 마감하였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 울음소리조차 참아가며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가족사의 비극은 그 어느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이에 박완서는 자기만이 보고 듣고 경험한 부당한 일을 증언하고자 하는 의무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박완서는 본격적인 자전적 소설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단연 손꼽히는 ‘날 것 그대로’이다. 유년시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스무 살 시절의 6·25 전쟁 체험에 이르기까지를 다룬 것으로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을 “이런 글을 소설이라도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 보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45)</sup>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나는 아버지를 대신한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 시골의 자연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시골의 무지함 때문에 아버지가 치료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죽었다 생각한 어머니는 오빠를 서울 학교로 보내고 오빠의 뒷바라지를 이유로 박적골을 떠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시골에 내려와 나의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 역시 서울로 데리고 간다. 서울의 문 밖에 위치한 현저동 꼭대기 집은 박적골의 풍족함과 대비되는 더럽고 삭막한 풍경으로 문 밖에 살면서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했던 나는 더욱 외로움에 침잠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나에게 ‘신여성’이 될

45) 김승미, 『박완서 장편소설 교육 방법 연구-『나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pp.66~68 참조.

것을 요구한다. 그러던 중 오빠가 졸업 후 취직을 하게 되고, 셋방살이를 끝내고 현저동 괴불마당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일제 말기에 오빠는 폐병을 걸린 올케와 결혼을 하고 드디어 문 안으로 이사를 하지만 얼마안가 올케는 죽고 만다. 이후 좌익에 가담한 오빠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 지하운동을 막기 위해 어머니의 뜻대로 오빠는 다시 결혼하여 조카도 생기고 교사가 되어 안정적으로 살지만 6·25 발발 후 오빠는 의용군으로 붙들려가고 나는 끊임없이 여러 단체에 불려 다니며 가혹한 경험을 겪는다. 오빠는 1.4후퇴로 가족들이 피난가기 전날 극적으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빠가 군인의 실수로 다리에 총을 맞아 결국 식구들은 가짜 피난으로 현저동에 몸을 숨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 버린 공허한 서울을 바라보며 나는 앞으로 언젠가 이 벌레의 시간들을 글로 쓸 것을 예감한다.

#### (1) 부성과 모성 공존의 정체성

전통적으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결핍, 부정, 부재, 비이성, 혼란, 어둠 등으로 그 여성상을 규정하였다. 여성을 중심에 있는 남성의 주변부로 생각하거나 남성이 아닌 타자로 생각하였고 이런 여성의 내적 현실은 여성 자아를 억압하는 한계점이 되었다. 여성은 남성들이 거주하는 중심의 공간에서 배제된 존재였으며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 취급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거부당해 왔다. 여성은 열등한 남성으로서, 그리고 남성의 반사된 타자로서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46)</sup>

그러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속의 어머니는 규범화된 수동적인 여성상을 거부한다. 대처의 양 의사에게 보였으면 간단했을 아버지의 병을 푸닥거리와 한약으로 다스리다 죽음에 이르게 한 박적골은 어머니에게 무지와 미개의 고장으로 변모한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전통적 생활 방식을 구식으로 치부하고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봉건적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한 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강한 여인으로 발전한다.

46) 김미현(1996), op. cit., pp.61~63 참조.

아버지는 형제 중 가장 체격이 좋고 잔병 한 번 치른 일 없는 건강체였다고 한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데굴데굴 구르는 것을 할아버지는 당신의 약방문에 의한 생약 한약 등으로만 다스리고, 할머니는 무당 집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이에 마침내 기지사경에 이르렀다. 그때서야 엄마는 단호히 아버지를 달구지로 송도까지 신고 갈 수가 있었다. 이미 아버지의 맹장염은 복막염을 일으켜 뱃속 가득 고름이 찬 것을 뒤늦게 수술을 했지만 항생제도 없을 때라 결국 덧나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엄마가 그걸 팔자소관으로 돌리지 못하고 시골의 무지몽매 탓으로 단정하고, 자식들이라도 어떡하든 그 곳에서 빼내고자 한 것은 처녀 적의 엄마의 서울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sup>47)</sup>

어머니는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 온 시골의 무지몽매로부터 자식들을 구해내기 위해 서울로 입성을 이루어낸다. 종갓집 맡며느리로서 시부모 부양을 저버리는 것은 당시대 유교 윤리에서 벗어나는 파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관습에 벗어나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편안한 삶이 보장된 박적골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듯 서울 입성 과정은 강인한 생활인으로서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아들의 성공을 성취하고 또 딸까지 서울로 데려와 소학교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에 진학시킨다. 여성의 교육에는 소극적이었던 당시대와 견주어 봤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영웅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따른 상처와 고통을 겪었기에 어머니는 당시대 봉건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억척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여성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어머니, 즉 여성의 강인한 면모와 봉건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맞물린 근대의 열망까지 알 수 있다.

또 어머니는 딸에게 ‘신여성’이 되기를 강요한다. 무지와 인습을 떨치고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함으로써 딸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자기 혼자 힘으로 아들과 딸을 각각 성공시켰다는 성취감까지 얻고자 함이다. 요컨대 어머니는 부성부재 상황 속에서 삶을 체념하거나 자기 존재감을 상

47)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2, pp.20~21.

실하는 나약한 여성보다는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길 택한 것이다. 이를 초월적 상상력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마는 어른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오빠를 서울의 상업학교에 보냈다. 상업학교는 송도에도 있는데 서울에까지 보낸 것은 엄마의 중대한 반란이었다. 그 사건으로 집안이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혼자 된 맏며느리가 아들 공부를 핑계로 시부모 모시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중략) 할아버지는 몹시 노했고 엄마는 의무를 포기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sup>48)</sup>

엄마는 이렇게 어른들의 노여움을 살 것만 했지만, 맏며느리에다 손 귀한 집 장손의 엄마이기도 했다. 그리고 맨손으로 서울이라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대처에다 최초로 말뚝을 박은 담대한 여자였다.<sup>49)</sup>

엄마는 통치마 입고 구두 신고 신식 교육받은 여자들을 휘뚜루 신여성이라 칭했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다.<sup>50)</sup>

한편 어머니가 서울로 와 처음 말뚝을 박은 ‘문 밖’ 현저동은 갖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 최하층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고난의 현장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문 밖’은 서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문 안’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처지를 채찍질한다. ‘문 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그 욕망을 쉽게 이룰 수 없는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에 어머니는 괴로움을 느낀다. 박적골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 밖’ 사람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문 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변부의 삶에서 비록 생계유지를 위하여 천한 기생의 옷을 수선하지만 자신은 그래도 양반가문의 맏며느리였다는 긍지로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

---

48) Ibid., pp.19~20.

49) Ibid., p.41.

50) Ibid., p.21.

렇기 때문에 동네의 이웃들을 ‘상것들’이라고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문 밖’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 밖’ 생활에서 오는 괴리감과 정체성의 혼란은 아들이 성공하고 딸이 신여성만 되면 ‘문 안’ 생활도 자연스럽게 성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sup>51)</sup> 결국 아들과 딸의 신분 상승은 나아가 어머니의 자기 확장 욕망까지 실현되는 것이다.

조용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머니가 보이는 부정적인 면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어머니는 딸에게 무조건 신여성이 되길 강요하면서 신여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문 밖’에 살면서 ‘문 밖’ 사람들을 상종 못할 상것으로 취급하며 자신이 양반집 종부임을 강조하는 등 여러 모순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겪게 되는 혼란은 전근대의 상징인 무지한 시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근대에 대한 열망의 뒤섞임에서 연유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개인의 실존적 삶보다는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을 삶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그 욕망이 좌절되었을 경우 어머니 자신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과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쌈박질이 그치지 않는 동네였다. 내외간에도 이년, 저놈 하고 싸우다가 나중엔 길거리로 싸움판을 옮겨 “아이고, 나 죽소. 이놈이 사람 잡네. 이 동네엔 사람도 안 사나?” (중략) 그럴 때 엄마는 인두판 위에서 기생 저고리의 간드러진 선을 자신 있게 인두질하면서 “저런 바닥 상것들 봤나, 언제나 이 숭한 동네를 면할꼬.” 나직하게 탄식하곤 했다.<sup>52)</sup>

“너는 근지(根地) 있는 집 자식이다. 본데없이 자란 이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봤댔자 못된 물만 든다. 나가 놀지 마라.” 엄마는 기생 바느질이나 하면서도 근지만 따졌다. 근지가 뭔지는 잘은 모르지만 신여성보다는 쉬웠다. 시골에서 행세깨나 하는 집안, 체면 존중하면서 살아온 우리 집안의 생활방식을 말한다는 걸 대강 눈치 챌 수가 있었다.<sup>53)</sup>

51) 박진화,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의식 연구- 『엄마의 말씀』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p.16~22 참조.

52) 박완서(2002), op. cit., p.67.

53) Ibid., p.61.

한편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서울에 말뚝 박기 위해 여자로서 힘든 삶을 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의 죽음은 슬픔과 애도가 아닌, 서울에 대한 입성의 의지를 각성하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 이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남편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이 있음에 기인한다. 즉 어머니는 남편을 대신해 부성의 역할을 도맡지만 절대적 가치인 남성의 상징성을 곧장 아들에게 이양한다. 이에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놓고 차별적인 모성애를 보일 수밖에 없다. 능동적이고 강인한 생활상을 보인 어머니 역시 결국 내면에는 부성의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두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적 상상력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딸이라고 음식 차별을 해 본 적이 없는 엄마가 그 비상시국 때만은 오빠 밥은 따로 지었다. 콩깍묵 냄새가 워낙 흥해서 같이 지어서 가려 푸기조차 싫었던 것이다.<sup>54)</sup>

그리고 아무리 어머니가 강인하고 남성성을 띤 부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살펴보면 결국 다 초월적인 모성에서 우리나라 모습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은 이 세상 어머니들로 하여금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을 선사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초월적 모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식을 위해 순사의 칼에 배를 찢릴 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쌀 한 알이라도 더 몸에 숨기고 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순사가 쌀을 뒤지러 다니는 것은 농가에만 해당되지 않았다. 기차 속에서의 단속은 더욱 그악스러웠다. 야미장수 단속만이 수시로 기차간을 돌면서 수상한 보따리는 뒤져 보고 찢러 보고 했다. (중략) 엄마도 차츰 대담해져 옷보따리에뿐 아니라 배에도 쌀을 차고 다니게 되어 나는 엄마가 시골 가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줄이곤 했다.<sup>55)</sup>

---

54) Ibid., p.156.

55) Ibid., p.156.

또한 모성은 생명에의 갈구, 생산성의 모체이며 풍요의 원천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의 신앙이다. 그러나 아들은 폐결핵에 걸린 며느리를 데려오고 제대로 된 신혼살림도 못하고 죽고 만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그악할 정도로 아들 목숨만 중하다는 듯하지만 결국은 아픈 며느리 역시 자기 품으로 보듬는다. 다시 말해 모성은 생명이고 풍요며 본능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개인적인 어머니이기 전에 이 땅 위의 생명 모든 것을 보듬는 사랑으로 충만된 모성의 뿌리이자 줄기로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시대와 상황, 대상을 초월한 모성적 생명주의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오빠와 엄마는 눈물겹도록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오빠의 건강을 생각해서 엄마한테 어찌자고 두 내외를 떼어 놓지 않고 모자가 같이 었드려져 그 유난을 떠느냐고 염려도 하고 비난도 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면 엄마는 애저녁에 못 떼어 놓고 이왕 우리 식구 된 거,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해 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올케도 눈을 감기 전에 그걸 엄마에게 깊이깊이 감사하고 떠났다고 한다. 엄마의 그런 면은 나도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면이었고, 엄마를 존경스럽고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56)</sup>

한편 아들이 한때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을 한 것은 늘 어머니를 불안에 떨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데올로기 대립을 두고 어머니는 사상의 옳고 그름보다는 아들의 안위를 기준으로 이데올로기를 판단한다. 결국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 치하에서 아들의 전향 사실을 모르는 인민군들에 의해 특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길한 징조를 느낀다.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모성적 예감이다. 결국 아들은 의용군에 끌려가고 어머니는 아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여전히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살아있으리란 믿음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1·4 후퇴가 이루어지던 시기 극적으로 돌아온 아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져 심각한 피해망상증을 앓으며 피난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

---

56) Ibid., pp.188~189.



다. 설상가상으로 시골 학교에 피신 가 있던 아들은 국군의 실수로 다리에 총알을 맞는다. 이런 아들은 더 이상 가부장적 질서의 대리 수행자이자 이상적인 인간형도 아닌 어머니가 돌봐야 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다. 어머니는 다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성과 같은 강한 책임과 의지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한다.

우리는 6·25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약자들이 겪어야 한 삶의 황폐화와 비극을 어머니의 삶을 통해 인식적 상상력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어머니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자신의 소임을 깨닫는 모습은 작가가 초월적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피난도 팔자에 있어야 가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 피난 가는 척이라도 해 보자꾸나. 저 동네에 아는 집이 있으니 거기 머물렀다가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어 사람들이 돌아올 무렵 우리도 피난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 동네로 돌아가자꾸나. 그 수밖에 없다.” 엄마는 줄창 그런 계락을 짜고 있었던 듯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하며 거기서 바라보이는 동네를 가리켰다. 우리가 가짜 피난지로 정한 동네는 현저동이었다. 다시 현저동이라니.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던 팔다리에 새로운 힘이 솟았다.<sup>57)</sup>

최초의 어머니는 ‘문 안’의 삶을 꿈꾸며 현저동 삶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였지만 극한의 상태에 다다랐을 때 가장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현저동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 어머니는 박적골을 박차고 나와 서울에 처음 입성한 ‘문 밖’ 현저동에서 진정한 부성과 모성의 공존을 이룸과 동시에 오빠와 나의 어머니로서,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는 부성부재의 상태에서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준다. 헌신적인 사랑과 모성을 근간으로 아들의 성공은 물론 딸까지 신여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근대 의식을 가지고 물질양면 희생한다. 강인한 부성과 생명과 풍요의 모성을 적절히 발현함으로써 서울

---

57) Ibid., p.267.



의 입성부터 시작하여 자식들의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삶의 파괴와 아들의 망가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모색함으로써 어머니는 바람직한 여성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성장기 정체성 형성과 세계인식

나에게 고향 박적골은 자연과 합일하여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평화로운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어머니가 오빠를 데리고 서울로 간 이후에도 나는 박적골에 혼자 남아 할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기 있고 건강한 유년시절을 보낸다. 소나기와 같은 자연 현상 하나에도 폭발적인 환희를 느꼈고 노을빛을 보며 순수한 비애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삶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해 주었고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워주었다.

채찍처럼 세차고 폭포수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북더위와 달음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아아, 그건 실로 폭발적인 환희였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미친듯한 함성을 지르며 비를 흠뻑 맞았고, 웅성대던 들판도 덩달아 환희의 춤을 추었다. 그럴 때 우리는 너울대는 옥수수나무나 피마자나무와 자신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환희뿐 아니라 비애도 자연으로부터 왔다.<sup>58)</sup>

그러나 나의 박적골에서 건강했던 유년시절은 서울로 오게 되면서 끝나고 세상과 갈등이 시작된다. 시골에서 조부모에게 담당하던 어머니가 안집 식구들에게 궁색하게 구는 모습, 셋방살이의 자질구레한 법도 등은 어린 나에게 혼란으로 다가온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셋방살이, 자유가 아닌 규제와 구속으로 가득한 서울 생활은 여덟 살의 어린 소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안집 애하곤 안 노는 게 수다. 까딱하단 애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 “안집 애가 뭐 먹을 땐 쳐다보지도 마라.” “안집 애가 가지고 노는 걸 탐내거나 만져 보지 마

---

58) Ibid., pp.27~28.

라.” “안집엔 들어가지 않을수록 좋다.” 솥재 새끼줄로 발목을 매 기둥에 매달아 놓는 게 낫지, 도대체 나더러 어찌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내가 있어도 없는 아이처럼 굴길 바라고 있었다. 박적골이 좁다라고 천방지축 망아지처럼 뛰놀던 여덟 살짜리에게 그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지 엄마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sup>59)</sup>

이러한 까닭에 나는 계속적으로 박적골을 그리워하며 서울 생활에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 특히나 ‘싱아’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은 낙원이었던 박적골과 비낙원인 현저동의 상호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싱아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으로 나의 무의식 속에 박적골과 함께 결핍으로 남아 있다. 한편 싱아 맛의 우월성을 통해 나는 싱아 맛을 보지 못한 토박이 서울아이들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잠시 벗어나기도 한다. 방학을 싱아가 있는 시골에서 보낼 수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며 서울 토박이 아이들에게 연민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sup>60)</sup> 즉 싱아와 박적골은 서울에서 소외된 주변인으로서 나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상징이자 서울 생활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험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 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중략)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중략)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금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헛갈리고 있었다.<sup>61)</sup>

59) Ibid., p.51.

60) 박혜림, 「박완서 소설의 문학치유 가능성 고찰 -전쟁체험 소재의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pp.45~46 참조.

61) 박완서(2002), op. cit., pp.76~77.

이처럼 서울 생활의 부적응, 환경으로 인한 세상과의 불화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 형성에 방해요소가 된다. 엄마의 욕망으로 문 밖에 살면서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문 안 아이들보다 현격히 촌스러운 복장과 문 밖에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한 종속관계 등은 나를 더욱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문 안에 사는 친적집을 내 집인 척 해야 하는 거짓 행동까지 요구 받는다. 바르고 정직해야 함을 배우고 행동해야 할 나이에 이해가 걸여된 거짓말은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 더불어 이러한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다정하게 헤아려주지 않는 어머니의 성정으로 인해 나는 더욱 외로움에 침잠하게 한다.

통학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귄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sup>62)</sup>

한편 이중적인 서울 생활의 혼란과 함께 박적골에 대한 나의 의식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서울에서 외로운 외톨이었던 나는 방학이 되자 신식 원피스를 입고 탈 줄도 모르는 스케이트를 가지고 박적골로 간다. 나는 엄마의 서울 생활에 대한 가식적인 행동에 이심전심으로 동조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식 원피스나 스케이트가 거짓임을 알고 있는 나이기에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한계를 가져온다. 서울에서는 문 안 사람에게 소속되지 못한 채 맴돌아야 했던 내가 고향에서는 어쭙잖게 서울 흥내를 내는 이방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나는 문 밖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을, 문 안 사람들에게는 열등의식을, 박적골에서는 어설픈 서울내기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만다.<sup>63)</sup>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지속적으로 성장기 정체성 형성에 장애로 작용한다.

---

62) Ibid., p.74.

63) 신은정, '박완서 소설 속에 나타난 '어머니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p.32~35 참조.

같이 놀던 동무들을 만나도 그전 같지가 않았다. 엄마가 애써 만들어 붙인 서울 티도 동무들과의 사이를 서먹하게 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서울 생활 반년 만에 벌써 내가 시골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것처럼 느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 했으니 그 애들 보기에 얼마나 눈꼴이 시였을까. (중략) 무엇보다도 시골 아이들은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신발을 여봐란듯이 메고 귀향할 일이 마음에 들었다. 엄마와 이심전심으로 죽이 맞았달까, 서울 문 밖에서 궁색하기 짝이 없이 사는 주제에 시골 가면 어떡하든 빼길 궁리부터 했다.<sup>64)</sup>

이런 나에게 어머니는 끊임없이 신여성이 될 것을 주입한다. 신여성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엄마의 욕심어린 모성애에 나는 신여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의 욕망을 대리 실현하는 존재가 된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여성에 대한 모델도 구축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이뤄야 하는 신여성은 나의 정체성에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이 후 소학교에서 신여성의 모습을 갖춘 담임선생님을 만나지만 곧 내 눈에 비친 선생님은 신여성의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반 아이들에게 손을 잡아보라며 자상함을 보이지만 내가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음을 모르는 허위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여 훗날 할머니가 선생님 드리라고 주신 깨강정을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선생님의 위선에 복수를 한 듯 후련함을 느낀다. 결국 나는 진정한 신여성의 모델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신여성에 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신여성이 돼야 한다.” 오로지 이게 엄마의 신조였다. 나는 신여성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신여성이란 말은 개화기 때부터 생긴 말이지만 엄마에겐 그때까지도 해득되지 못한, 그러나 매혹적인 그 무엇이었다. 구식 여자들이 살아온 것과는 전혀 딴 운명을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엄마의 한 맺힌 매혹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sup>65)</sup>

---

64) 박완서(2002), op. cit., p.99.

65) Ibid., pp.60~61.

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아이들이 성(性)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에 대한 생리적 호기심과 본능조차도 어머니의 식에 의해 저지된다. 급기야 성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며 금기시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자연스러워야 될 것 중 하나인 성이 금기의 대상으로 억압됨으로써 나는 계속해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를 받고 만다.

사춘기에 오빠의 열렬하고도 헌신적인 연애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나에게 꼭 잠긴 문 저쪽 암흑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性)문제에 있어서 그러했다. (중략) 내 앞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성적인 암시가 들어 있는 소리를 하면 어린애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질책을 하는 엄마의 유난스러운 순결교육 때문이기도 했다. (중략) 사춘기에 성적인 상상이나 심지어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것조차 속으로 몹시 부끄러워하고 자책한 것은 엄마가 나를 성적으로는 마냥 어린애이길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sup>66)</sup>

그러나 다행히 오빠가 취직을 하고 괴불마당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서울 생활에 점차 적응하며 정체성 찾기를 시작해 나간다. 일생에 있어 성장기는 정체성을 탐구하고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누구나 이 과정에서 얻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때 나는 오빠의 영향을 받으며 사상을 형성하는데, 이는 오빠가 나에게서 우상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오빠와 동일한 사상을 흉내 내고 싶었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현저동에서 느끼는 서울에 대한 괴리감과 박적골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신여성에 대한 주입적인 요구, 문 밖과 문 안의 생활에 대한 혼란 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나에게 절대적인 동경의 대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빠이다. 폐결핵에 걸린 언니를 사랑한 오빠의 모습마저 존경할 정도로 오빠는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서, 모든 행동의 준거가 되며 나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오빠는 곧 아버지의 대리자였던 것이다.

중학교 삼학년 때 나는 민청 조직에 포섭되어 토론을 하며 오빠의 동지가 됐

---

66) Ibid., pp.190~191.

다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낀다. 메이 데이 행사 때 늘 비판받던 나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고 노동자와 학생들 틈에서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인민가요를 따라 부르는 결단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아팠다는 이유로 며칠간 결석을 하고 학교에서 메이 데이에 가담했던 학생들을 선별하여 벌하는 것을 면하게 된다. 나는 비겁한 나의 행동과 이중성에 두고두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기혐오에 이른다. 나는 여전히 주체성을 상실한 채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혼란을 겪는다.

그렇다고 오빠가 나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건 아니다.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고 용모가 준수하고 말수가 적고 우애가 깊었다. (중략) 이런 오빠는 나에게 큰 백이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추종하고 싶은 우상이었다. (중략) 우리 집안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의 높은 생각을 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감지한 게 오빠의 사상의 빛깔이었다.<sup>67)</sup>

그러던 중 나는 오학년으로 진급하며 문과반을 선택하고 처음으로 존경하는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과잉 감정이나 미사여구를 싫어하는 선생님의 문장지도법으로 인해 나는 문학소녀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문학 분야에서 소질을 찾으려 자기 발견의 계기를 얻는다. 그리고 문과반에서 죽이 잘 맞는 친구들도 만나 또래의 아이들처럼 즐거운 학창생활을 즐기게 된다. 문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혼자 산을 넘던 시절부터 외로움에 익숙해져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했던 나에게 문과반 생활은 밝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과 잘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 바로 그동안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진정한 자아 발견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창작시간의 그 분의 문장지도도는 매우 엄격했고 나도 소질이 있을지도 모른

---

67) Ibid., p.197.

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중략)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센티한 미사여구를 적절하게 구사하면 다들 그걸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말했고, 그런 재간이 있는 예를 문학소녀라고 불러 왔기 때문에 선생의 그런 문장 지도법은 파격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문학소녀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나도 소질이 있을 것 같은 자기발견의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을 갖게 되었다.<sup>68)</sup>

그리고 나는 스무 살이 되어 꿀 수 있는 온갖 황홀한 꿈에 젖어 자유를 희망한다. 박적골에서 상의도 없이 싹둑 단발머리로 잘라버리고 무조건적인 신여성을 주입하던 어머니에게 단 한 번 강한 분노를 표출해 본 적 없는 나지만 늘 어머니로부터의 해방을 가슴 속 깊은 욕망으로 품어온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독립은 온전한 ‘나’로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스무 살, 성인이 되면서 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꿈에 부풀게 된다.

그렇다, 그 계절에 나를 매혹시킨 것은 자유에의 예감이었다. 중학생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도 온갖 금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나는 엄마로부터의 자유까지를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다. 시집이나 가면 또 모를까, 처녀 시절에 엄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꿈이나 꾀 봤을까. 아니 꿈도 안 꾀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건 내 꿈 속의 꿈, 가장 내밀한 욕망이었다.<sup>69)</sup>

하지만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젊음으로 타올랐던 싱그러움의 불씨는 꺼지고 만다. 인민군이 주도권을 잡자 오빠의 전향을 모르는 인민군들은 오빠의 젊은 시절 투쟁 경력을 인정하여 대우해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빠는 갑작스레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어머니는 좌절한다. 이에 반해 나는 바뀐 세상과 인민군의 약속에 공감하며 그들의 승승장구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또 한때 민청 조직에 들어 있었다는 걸 대단한 투쟁 경력처럼 자부하고 싶은 생각까지 갖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민청학습에 서서히 지쳐가고 박제됨을 느낀다. 유명 강사 강의의 도강하며 ‘도강’이라는 단어에 쾌감을 느끼고, 유명한 학자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대학생의 특권에 도취되어 있던 나는 일순간 6·25 전쟁으로 삶이 황폐

---

68) Ibid., pp.209~212.

69) Ibid., p.224.



해짐을 느낀다. 자유를 꿈꾸던 스무 살의 싱그러움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쳐 나자빠지고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만 것이다.

민청학습은 소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소리의 무한한 복습이었다. 저절로 지쳐 떨어져 물 간 생선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엔 스스로를 박제가 돼 버린 것처럼 느꼈다. (중략) 생기라 해도 좋고, 윤기나 부드러움이라 해도 좋은 그런 정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하는 일 가운데는 따로따로 하는 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잔재미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된 게 그것까지 말라 버린 느낌이었다. 아니, 그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였다. 황폐의 극치였다. 나는 전쟁 중 생리가 멎어 버렸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소리를 나중에 여러 번 들었는데, 대개는 영양부족 탓으로 돌리는 듯했다. 물론 영양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심리적 중성화 현상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중략) 나는 오빠가 의용군에 붙들려 간 걸 기회로 학교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다. 오빠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냥 지쳐 나자빠진 거였다. 수정이 안 된 열매처럼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sup>70)</sup>

그리고 며칠 안 있어 세상이 다시 바뀌고 국군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우리 가족은 존재 자체가 사회의 불안 요소이자 제거당해야 마땅할 빨갱이가 된다. 역사의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나의 인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산산이 부서지고 침해당한다. 6·25 전쟁은 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기에 충분하였다.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빨갱이로 치부된 나는 한 마리의 벌레일 뿐이었던 것이다.

또한 6·25 전쟁을 겪으며 사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남북 양 진영에 배척당하는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고 우상의 대상이었던 오빠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비극은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들은 마치 나를 짐승이나 벌레처럼 바라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 주었다. 벌레처럼 기었다. 정말로 그들에겐 징그러운 벌레를 가지고도 오락거리를 삼을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단순성이 있었다. (중략) 나는 밤마다 벌레가 됐던 시간들을

---

70) Ibid., pp.248~249.



내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며 몸부림 쳤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들이 나를 벌레로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그야말로 정말 벌레가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공포감 때문에 어떡하든지 망각을 물리쳐야 한다는 정신이 들곤 했다.<sup>71)</sup>

그러나 현저동으로 가짜 피난을 온 뒤 마침내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텅 빈 서울의 공허함 속에서 나의 소임과 역할을 인식한다. 내가 보고, 겪고 있는 전쟁의 폐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허무함, 인간성의 추락, 운명의 잔인함 등 모든 비극을 증언해냄으로써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극적인 상황 속에서 찰나의 순간, 나는 내게 주어진 책무를 인식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된다. 허상의 이념 대립과 싸움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되어 버리는 이 모순들을 글로 풀어서 증언해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복수하는 길이며 또 나와 어머니, 오빠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이다.

그때 문득 골목까지 쫓긴 도망자가 획 돌아서는 것처럼 찰나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왔다. 나만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만 여기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약한 우연이 얹치고 덮쳤던가. 그래, 나 홀로 보았다면 반드시 그걸 증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말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다. 증언할 게 어찌 이 거대한 공허뿐이라. 벌레의 시간도 증언해야지. 그래야 난 벌레를 벗어날 수가 있다.<sup>72)</sup>

우리 모두의 삶을 한순간 뒤바꿔놓은 전쟁과 이로 인한 극한의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체념하는 자, 던고 일어서는 자로 나뉘는데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나의 선택은 후자로 앞으로의 글쓰기에 대한 다짐은 모든 것을 박탈해 간 시대에 대한 고발이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 모두가 경험해야만 했던 내면 속의 절망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이며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

71) Ibid., pp.254~255.

72) Ibid., p.269.

결국 초월적 상상력의 발로로 자신의 막힌 정서를 글쓰기로 풀어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슬픔을 해소하며, 억압된 감정을 글쓰기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날들에 대한 내면적 상처를 객관화하여 스스로 치유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체험한 경험들에 대한 수많은 되새김이 지나고, 과거로의 기억을 더듬어 회귀하며 내면적 통찰로 젊은 날의 상처들을 6아가 오늘날 우리 삶과 사회의 모든 문제에 울림을 줌으로써 우리가 마주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고찰과 능동적인 해결을 위한 발로가 될 것이다.

서울 생활 부적응과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이방인적 삶,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지쳐 나자빠지고 말아버린 삶, 동경의 대상이었던 오빠의 망가짐 등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만 결국 이러한 경험은 또다시 시대 고발이라는 소임을 가져온다. 어린 눈으로 보고 느꼈던 세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세계를 열어 준 것이다.

### 3) 모성애의 집착과 한의 극복

『엄마의 말뚝 1, 2, 3』은 연작소설로 1부는 일제 시대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꼭대기에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이, 2부는 어머니가 다리 수술 후 오빠의 비참한 죽음과 관련된 광기(狂氣)를 보이는 모습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3부는 그 후 7년을 더 산 어머니의 경과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이 중심이다.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6·25 전쟁의 공포와 고통, 분단의 비극,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3편의 연작을 통해 촘촘히 나타난다.

『엄마의 말뚝 1, 2』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현저동에 집을 마련하고, 오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 2』는 특히 오빠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원한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 작품의 핵심은 해방에서 휴전까지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전쟁의 공포와 죽음이 아니라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살아남은 어머니의 원한 맺힌 삶의 궤적이다.

눈길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친정어머니는 수술 후 잠을 자던 중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인다.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총상을

당한 뒤 비극적으로 죽어 간 아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한다. 의용군에 지원했던 오빠는 흥몽처럼 정신이 망가진 채 돌아온다. 1·4 후퇴 때 오빠의 시민증 발급이 어려워 피난이 힘들어지자 어머니는 현저동으로의 가짜 피난을 선택한다. 그러나 인민군에게 발각되고 다리에 총상을 입은 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한다. 어머니의 가슴에 말뚝으로 박힌 채 평생 한이 되어버린 오빠의 이러한 죽음을 애써 잊은 척 살고 있던 나는 어머니의 귀기 넘치는 울부짖음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의식을 찾은 어머니는 나에게 오빠 장례 때처럼 묘를 쓰지 말고 화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다.

### (1) 모성애의 집착과 한의 생성

겨울 날, 어머니는 눈을 치우는 손자를 거들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는 고령을 이유로 수술을 권장한다. 완강히 수술을 거부하던 어머니는 부러진 뼈 사이에 쇠붙이를 넣어 있는 수술이라는 설명에 과거 죽은 아들이 해 준 ‘산골’을 기억하며 수술을 결심한다.

옛날 현저동 괴불마당집에서 살던 시절, 어머니는 겨울에 장작단을 이고 오다 눈에서 미끄러져 오른 손목이 부러진다. 이를 위해 오빠가 뼈 붙는데 좋다는 ‘산골’을 구해오자 어머니는 오빠의 효심에 감동하고 안 다쳤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한다. 이런 기억이 있기에 어머니의 ‘산골’에 대한 믿음은 곧 아들에 대한 믿음이며 애정이다. 따라서 30여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노인이 된 어머니는 이 ‘산골’의 영험함을 믿고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죽은 아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 비록 죽은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강력한 생명 의지를 부여하는, 존재의 의미와 생의 의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뼈 부러진 댄 산골이 제일이란 말이지?” “네?” 나는 어머니의 말뜻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을뿐더러 돌변한 어머니의 태도는 막연히 기분 나쁘기까지 했기 때문에 생금스러운 소리로 악을 썼다. “의술이 제아무리 발달해도 뼈 부러진 댄 산골밖에 없다고? 암 산골이 제일이고 말고……산골은 영약인걸.” 어머니는 마치 잃었던 어린 날의 동요를 주워 올리듯이 그림고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

렸다.<sup>73)</sup>

오빠의 산골이 어머니를 감동시킨 건 말할 것도 없다. 어머니는 안 다쳤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고, 매일매일 모래시계처럼 정확하게 손목의 부기와 아픔을 덜해 가다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열흘 만에 완쾌를 선언했다.<sup>74)</sup>

그러나 아들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추억은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써 가슴에 묻어두려는 어머니의 의식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회복실로 돌아와 밝은 모습으로 가족 모두를 안심시켰던 어머니는 밤중에 나와 단들이 있을 때 잠을 자다 경련을 일으킨다. 무의식 상태에서 어머니는 오빠가 인민군에게 다리에 총을 맞던 날로 돌아간다.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로 자신의 다리 손상을 통하여 아들의 상실을 재기억하게 된 것이다.

“그놈이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나?”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연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꿈쩍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 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중략)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었다.<sup>75)</sup>

인민군의 총 앞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은 불가사의한 괴력으로 폭발한다. 눈앞에서 아들의 총살을 지켜봐야만 했던 어머니의 좌절감과 아들을 앗아간 전쟁의 폭력성은 어머니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한(恨)으로 남은 것이다. 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한(怨恨), 회한(悔恨), 집단한(集團恨), 여한(餘恨)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원한

73)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3, p.105.

74) Ibid., p.113.

75) Ibid., pp.126~127.

은 타자에 의한 한이며, 회한은 자책의 한, 집단한은 민족의 한, 여한은 자식의 불행을 부모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느끼는 한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한은 복합적인 것으로 가해자가 분명한 죽음에 있어서는 원한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에는 회환이 될 것이다. 또한 전쟁 체험 세대 간에는 집단한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선택한 현저동에서의 죽음이었기에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여한까지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광기 어린 폭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은 원한에 좀 더 가깝다 볼 수 있다. 막스 셸러에 의하면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개인적 소절이나 처지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젊은이보다는 노인에게, 군인보다는 승려에게 더 많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여성·늙은이·승려)이 상대방(남성·젊은이·군인)보다는 훨씬 약하고 불만족스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리한 조건에 반격을 가하거나, 최소한 드러내놓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처지에 놓여 있지 못한 때문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다.<sup>76)</sup> 어머니 역시 약자 입장에서 겪어야 한 전쟁의 거대한 실체와 그 폭력성, 또 아들의 죽음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원한이 되어 가슴 깊이 말뚝 박힌 것이다.

그리고 이 내면 속 깊은 한을 애써 외면하며 평온한 듯 삶을 살던 어머니에게 무의식 중 다리의 고통은 다시금 어머니 육신 속에 30년 전 다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아들을 재생해 내게 한 것이다. “부처님을 닮은 곱고 자비롭고 천진한 얼굴로 늙어 가셨던 어머니”<sup>77)</sup>였기에 이런 광기어린 폭발은 어머니가 당한 참척과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또 전쟁이 가져다 준 그 비극은 살아생전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임을 증명한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참고 덮어왔나 싶을 정도의 광란으로 죽은 아들에 대한 한과 상처를 발산한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이 작품이 전쟁의 광폭성이나 분단의 비극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원한을 통해 인식적 상상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한 삶의 황폐화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76) 천이두(1993), op. cit., pp.16~31 참조.

77) 박완서(2013), op. cit., p.131.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 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 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逆流)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이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 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중략)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어지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끼치는 기성이었다.<sup>78)</sup>

오빠는 한때 좌익운동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뒤 서울에 남게 된 것을 극도로 불안해한다. 그러던 중 이웃의 고발로 끌려간 뒤 의용군에 지원했다 도망쳐 오지만 속속들이 망가진 모습이다. 피난을 위한 시민증 발급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현저동으로 가짜 피난을 갈 것을 선택한다. 현저동으로의 피난에 대하여 식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과거 속의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 이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저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저동으로의 피난은 고향으로의 귀소의식이 발현된 것으로서 돌아갈 수 없는 박적골을 의식적으로 대체한 장소가 도시편입 이후 최초로 말뚝을 박은 현저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sup>79)</sup> 그리고 어머니는 절망의 끝에서 자신들이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가장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현저동과 그곳의 ‘고전적인 가난과 진국스러운 인심’이야말로 자신들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곳임을 깨달은 것이다.

“애들아, 우리 현저동으로 가자꾸나.” 어머니로부터 현저동 소리를 듣자, 나는 마치

78) Ibid., pp.128~129.

79) 박철수,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7권 제2호, 2006, p.4.

오랜 방탕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탕아처럼 겸손하고 유순해졌다. 번들거리는 불안한 빛을 빼면 텅 빈 오빠의 눈에도 일순 기쁨 같은 게 어렸다. “그 처넙속처럼 구질구질한 동네는 우리가 숨어 지내기 알맞을 거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처넙속처럼 구질구질하다는 어머니의 표현이 경멸보다는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중략)내로라고 뽐내는 사람들의 인심에 초개처럼 농락당하고 상처받은 우리는 우리가 처음 서울 와서 가장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빈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고전적인 가난과 진국스러운 인심을 생각하고 마치 구원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있었다. 오빠의 망가진 정신이 어찌면 치유될지 모른다는 희망까지 생겼다. 우리는 마치 귀향처럼 아니, 크고 너그러운 품으로의 귀의(歸依)처럼 조용한 희열에 넘쳐 허위단심 현저동 꼭대기를 기어올랐다.<sup>80)</sup>

그러나 어머니가 선택한 현저동에서 어머니의 신앙과도 같던 아들은 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화장하여 개풍군이 바라보이는 강화 바다에 뿌린다. 이 행위는 작게는 집안의 장손인 아들이 선영이 있는 개풍군의 땅에 묻힐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한풀이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녘 가까운 바다에 뿌림으로써 어머니의 말뚝이자 어머니를 존재하게 하는, 어머니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을 빼앗아간 분단이란 괴물과 맞서 싸우고자 함이다. 이는 초월적 상상력으로써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약자의 입장에서 역사의 굴곡에 대한 저항이자 개인의 원한을 풀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들의 뺨가루를 뿌리는 어머니가 운명에 순응하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방금 출전하려는 씩씩한 용사처럼 도전적’일 수 있는 데는 아들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다. 아들을 향한 응집된 사랑과 아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절망감이 어머니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이란 괴물을 거역함으로써 어머니는 다시금 생의 의지를 발현하게 된다.

이에 조용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삶에 있어 진정성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6·25 전쟁의 체험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통이기

80) 박완서(2013), op. cit., pp.138~139.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고통과 상처에 이입함으로써 분단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시대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쓰다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빠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sup>81)</sup>

어머니가 오빠의 추억이 담긴 산골을 떠올리며 다리 수술을 허락했듯이 오빠는 어머니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삶의 이유이자 의미이며 신앙 같은 존재이다. 오빠의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sup>82)</sup> 그 원한과 상처를 애써 덮어 감추지만 무의식중에 자신의 다리 부상과 아들의 다리를 오버랩하며 30년 전 아들이 다리에 총을 맞던 날로 돌아간다. 귀기 어린 발작을 일으키며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란을 한다. 아들의 죽음을 가져온 전쟁의 폭력성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원한이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그간 가슴에 숨겨왔던 그 모든 아픔과 원한을 무의식중에 표출함으로써 어머니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의식을 찾은 뒤, 아들의 골회를 개풍군이 보이는 바다를 향해 뿌렸듯 딸인 나에게도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한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전쟁은 살아있는 한 끝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삶은 터전은 물론 삶의 이유와 희망마저 앗아간 전쟁의 참혹함

---

81) Ibid., pp.147~148.

82) Ibid., p.144.



은 이처럼 한 가족사와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어머니의 원한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어머니가 아들의 골회를 복讖에 뿌리고 자신 역시 그러길 바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모성애의 집착과 분단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자 처절한 싸움을 엿볼 수 있다.

## (2) 한의 인식과 극복 의지

나는 어머니와 오빠의 죽음이라는 공통된 상처를 가지고 있으나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sup>83)</sup> 애써 덮어두고 겉보기에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평소 집을 비울 때 집으로부터 몸뿐이 아닌 마음까지 함께 떠나갔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섬뜩함을 느끼고 집에선 영락없이 크고 작은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기분 나쁜 섬뜩함을 사랑하는 역설적인 태도를 지닌다. 나의 부재가 가족들에게 나의 존재와 안주인으로서 권세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년 여성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외출 중 또다시 집으로부터의 완전한 방심을 깨닫고 가장 최악의 섬뜩함을 느낀 후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남은 일촌은 나 하나임을 깨닫고 6·25 전쟁 때 여인 오빠를 생각하며 상실감을 느낀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던 나는 수술 후 잠이 든 어머니의 발작을 계기로 어머니와 같은 고통의 세계로 회귀하게 된다. 오빠 죽음의 현장에는 ‘우리 모녀’만이 있었고 그 충격과 원한 역시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따라서 비극에 맞서는 것도 ‘우리 모녀’만의 일이 된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이고 이러한 가슴에 박힌 원한은 무의식 중 광란으로 표출된다. 부처님을 닮은 고운 얼굴은 어머니의 걸모습이었을 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아픔과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여과 없이 그 통곡과 절규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상처에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나 역시 오빠의 죽음을 암묵적으로 감추고 덮어왔던 나의 상처를 바라본다. 서로에게 철저히 숨기고 은폐해 왔던 기억이 발현되고 오빠의 죽음이 어머니와 나의 공동의 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자 나는 진정으로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83) Ibid., p.144.

즉 애써 잊고 감추려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는 부처님을 믿는 걸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과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곱고 자비롭고 친진한 얼굴로 늙어 가셨다. 비록 아들은 잃었으나 거기서 난 손자들을, 그의 짝들을, 거기서 난 증손자들을, 딸과 외손자들을 사랑하며, 그러나 결코 짐작하진 않으시며 행복하게 늙어 가셨다. 누구보다도 화평하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거의 황홀하리만큼 아름답게 늙으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보살(菩薩)이라고 숙연해지곤 했다. 사람 속의 오지(奧地)는 아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라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내 어머니의 오지에게 감춰진 게 선(善)과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원함과 저주와 미움이었다는 건 정말 너무했다.<sup>84)</sup>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간섭도 필요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중략)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패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패륜에 패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sup>85)</sup>

의식을 찾은 어머니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나에게 ‘그 짓’을 부탁한다. ‘그 짓’은 죽은 아들의 곁에 가고자하는 애달픈 어머니의 한(恨)서린 사랑이자, 분단이란 괴물에 맞서고자 함이다. 어머니의 부탁에 화장을 약속하면서 어머니의 원함과 아픔은 나의 몫이 된다. 즉 어머니와 나는 공동의 한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의 말뚝을 이어받는 것이다. 엄마의 말뚝이 어머니의 한이요, 의지였다면, 이제 나도 그 한을 공유하고 분단의 비극을

84) Ibid., pp.130~131.

85) Ibid., pp.129~131.

헤쳐 나갈 의지를 키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말뚝 이어받기를 통해 마침내 어머니와 나는 통곡을 끝내고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딸의 태도는 초월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 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뿔뿔이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sup>86)</sup>

한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것이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라고 나는 문제를 제기한다. 분단의 비극과 현실에 대한 저항 방식이 기껏 뺏가루 뿌리기에 불과한데 대해 안타까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즉 조용적 상상력과 맞닿은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어머니가 요구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함으로써, 어머니의 뜻에 동의하며 한계 속에서 서나마 분단 현실에 저항하려는 안간힘을 계승한다.

전쟁의 참혹성 속에서 약자로 대변되는 여성이었던 어머니와 나는 오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 비극과 원한은 더욱 심화된다. 그리하여 전쟁이 가져다 준 상처는 어머니와 나의 내면에 잠재되어 언제든 불시에 폭발할 수 있다. 일상을 통해 애써 외면하고 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피의 일종일 뿐 근본적 치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늦추기만 할 뿐이다.

이때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지난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원망하며 비애를 느껴야 한다. 이것을 적응적인 애도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애도반응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애도과정을 통해서 점차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어머니와 내가 30여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끔찍한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을 소화하지 못

---

86) Ibid., p.148.

했음에서 온 것이다.<sup>87)</sup>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기억을 공유한 모녀뿐이다. 내가 어머니의 삶을 껴안고 이해함으로써 동일시를 이루고 이로써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단 현실에 대한 한의 치유와 극복의지는 오늘날 우리의 몫으로 확대된다. 우리는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분단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분단 문제에 대해 회자하고 서술하기를 반복함으로써 문제 인식의 확대와 고통 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또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평범한 삶을 가장하여 애써 잊은 척 외면해왔지만 끝내 숨길 수도, 사라질 수도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참척과 그 원한에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마침내 모녀의 한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유를 바탕으로 딸은 좌절이 아닌 저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비록 저항의 방법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소극적이라는데 한계를 갖지만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산업화 시대의 중년 여성상

우리나라는 1970년대 국가주도형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물질적인 삶의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 제도나 의식이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물질의 발달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갖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먼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농촌의 소외, 지역 간의 격차, 공해문제 등을 가져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물질만능주의는 비인간화와 생명경시풍조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낳음으로써 사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박완서는 산업화가 일어난 거대화된 도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라 할 수 있다. “박완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급격한 변

87) 박혜림(2012), op. cit., p.69.

화들이 일상적 차원에서 어떤 징후로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한 작가이다. 다시 말해 70년대를 전후한 사회적 변화가 우리의 일상적 삶의 꼴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는가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 본 작가”<sup>88)</sup>라고 평가받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박완서의 1976년 첫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은 세속적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반성적 사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물적 삶’을 비판하는 주체의식이 주를 이룬다. 1970년대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이 전 국토를 뒤덮으며 그 뒤권에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의 고통이 서서히 노골화될 때여서 자본주의의 이기성과 비인간성이 여러 방향으로 고발되던 때이다. 박완서의 소설들은 단순히 이런 고발의 차원이 아닌, 구체적 삶의 양면성 즉 훼손되는 삶의 실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고통스런 자의식 등을 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sup>89)</sup> 또한 물질만능주의 세태 속에서 우리가 놓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우고 있다. 즉 생명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생명에 대한 외경심 또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박완서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구체적 일상 중 우연히 또는 갑작스럽게 심상치 않은 삶의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주체는 주로 평범한 가정 속 중산층 여성, 즉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엄마들’이어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생각하는데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으로 분류된다. 중년이란 자신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 관계에 강하게 규정받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여성들에게 중년은 가족관계 속에서 규정된 아내, 어머니 등의 역할에 의해 자신의 삶이 고정된 방식으로 고착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아마도 이런 ‘관계’에서 규정된 역할 규범에 대한 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의식해 가는 과정은 이들이 살아가는 과정과 그리 조화롭지 못하면서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조화롭지 못함’, 즉 불화감은 여러 가지 정서나 느낌들로 이들이 자기를 의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의식화 과정을 통해 점점 자기 삶을 반성해 간다. 그런 점에서 여성 의식, 혹은 여성적 서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90)</sup>

88) 이남호, 『말뚝의 사회적 의미』, 권영민 외(1991), op. cit., p.319.

89) 이선미, 『박완서 소설연구』, 깊은샘, pp.254~255 참조.

따라서 이번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작품은 산업화 시대 중년 여성의 삶이 잘 나타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 『해산바가지』이다.

#### 1) 삶의 진정성 회복에 대한 소망

산업화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본주의, 도덕적 가치 등에 대한 소외를 가져왔다. 속물적인 세태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과 정신적인 가치의 붕괴로 인한 자아 상실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다.

박완서는 이러한 속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신적 가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를 통해 말하고 있다. 주인공 나는 세 번째 결혼을 하며 고향인 서울로 돌아온다. 내가 서울에 온 것을 알게 된 동창들의 전화로 인해 모임에 참석한다. 세 번의 개가에 대해 당당히 말하는 나를 보며 친구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나의 변화에 당황한다. 나는 피난 시절 딸에게 양갈보짓을 강요하던 어머니와 세 번의 결혼을 떠올리며 부끄러움과 같은 감수성을 잃게 된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직도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경희네 집에 방문하지만 나는 경희의 부끄러워하는 모든 모습이 계산된 연기임을 파악하고 그녀의 속물성을 발견한다. 한편 나는 경희의 조언으로 일본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이 끝난 후 우연히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일본인 관광 안내원의 말을 듣게 되고 나는 잊었던 부끄러움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 (1) 물질주의와 인간성 상실

소녀 시절, 나는 “유독 부끄러움에 과민한 병적 감수성 때문에 암전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던 모범생”<sup>91)</sup>으로 ‘부끄러움’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확인한다. 그러나 삶의 진정성을 잃은 남편들로 인해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새 나는 두 번의 이혼 끝에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서울로 온다. 나는 남대문을 보며 어린 시절 경희를 느꼈던 것과는 달리 정기(精氣) 따윈 사라지고 서울의 새로운 질서에서 소외됨을 느낀다. 나는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과 같은 뒤죽박죽 상

90) Ibid., pp.244~245.

91)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한양출판, 1994, p.232.

태에서 도덕적 가치 기준을 상실한 채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그리고 결국 학창 시절 나의 상징이자 나의 정체로 규정됐던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세 번의 결혼과 개가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당황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나의 모습이 곧 산업화 시대의 보편화된 인간성 상실의 모습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내 경우는 특히 그게 좀 심했던 것 같다. 조그만 실수에도 부끄럽다든가 하는 생각도 미처 들기 전에 얼굴부터 빨개졌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열기를 의식하자 하찮은 일에 큰 죄나 진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마는 내 변변치 못한 성품이 싫고 부끄러워 한층 얼굴이 빨개지면서 엉망으로 찢절됐다. (중략) 나는 개가란 말을 얼마나 멋있게 자랑스럽게 했는지 내 두 친구는 완전히 질린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도 유쾌하지 않아서 이마를 몹시 찡그렸다. “너 참 많이 변했구나. 부끄럽도 꽤는 타더니.” 영미가 경멸하듯이 말했다.<sup>92)</sup>

나의 ‘부끄러움’ 상실은 전쟁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 중 아버지가 없던 집 맏이였던 나에겐 유난히 식구가 많았다. 가난이 극대화되자 먹고 살기에 지친 어머니는 나에게 미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양색시가 되길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거부하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한 어머니는 홧김에 대신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한다. 딸에게 양갈보짓을 시키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절망하며 부끄럽다는 감정조차 사치라 생각한 나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전쟁 후 가난은 생존을 유일한 목표로 만들었고 이는 물질만능주의와 함께 인간성의 황폐화, 도덕적 가치의 상실을 낳았다. 이로써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있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이년아, 똑똑히 봐 뒤라. 이 인정머리 없는 독한 년아. 이 에미 꼬락서니를 봐 두란 말이다. 어디 양갈보짓이라도 해먹겠다. 어느 눈먼 양키라도 땀벼야 해먹지. 아무리 해먹고 싶어도 이년아, 양갈보짓을 어떻게 혼자 해먹니. 우리 식군 다 굶어 죽었다, 죽었어. 이 독살스러운 년아. 이 도도한 년아. 한강물에 배 떠나간 자국 있다던? 이 갈잖던 년아.” 나는 무서워서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아마 그 순간 내 내

92) Ibid., p.232.



부의 부끄러움을 타는 여린 감수성이 영영 두터운 딱지를 붙이고 말았을 게다. 제 딸을 양갈보짓 시키지 못해 눈이 뒤집힌 여자를 어머니로 가진 여자. 그 가슴의 그 징그러운 젖을 빨고 자란 여자가 어떻게 감히 부끄럽다는 사치스러운 감정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sup>93)</sup>

이에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결혼을 선택한다. 나의 결혼은 “시집가는 게 양갈보짓보다 더 도덕적이라 판단한 것도, 양갈보짓을 시키지 못해 환장을 한 어머니를 만족시키는 것도, 저희들 배만 채우려는 아귀 귀신같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도”<sup>94)</sup> 아닌 그저 현실도피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전쟁과 가난, 어머니로부터의 자기 파괴 등은 나의 윤리관을 변화시켰고 도덕적 가치관을 상실하게 한다. 이로써 나는 세 번의 결혼 속에서도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한다.

결혼으로 만난 세 명의 남편들 역시 조금의 부끄러움도 갖지 못하는, 물질중심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과의 결혼 생활은 나로 하여금 더욱 부끄러움에서 멀어지게 한다. 첫 번째 남편은 중농으로 무식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두 번째 남편은 칼럼에 드러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위선자로 자신의 무능을 외면한 채 출세만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 남편은 위선은 없지만 배금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는 각각 무식과 허위와 탐욕을 대변하고 있는 이러한 남편들에게서 징그러움을 느낀다. 나를 비롯한 세 명의 남편이 보여준 도덕적 가치관 상실은 산업화 시대의 전형성으로 조용적 상상력을 통해 비판의식을 가져야 할 중요부분이다.

신랑은 무식하고 교만했다. 나는 여지껏 자기의 무식과 자기의 돈에 그렇게 자신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자기 외의 딴 사람의 삶에 대한 상상력이 철저히 막혀 있었다.<sup>95)</sup>

그는 겁쟁이이고 비겁하고 거짓말쟁이였다. 순 엉터리였다. 그의 본심은 돈과 명예에 기질이 들려 있었고 T시와 T대학 강사 자리를 지긋지긋해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이런 곳에서 썩긴 너무 가까운 존재라고 억울해 했고, 서울의 일류 대학에서

93) Ibid., p.236.

94) Ibid., p.237.

95) Ibid., p.237.



자기의 명성을 흠모하고 모시러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기도 했다.<sup>96)</sup>

“당신 동창 중에라도 재벌이나 고관 사모님 없으란 법 없잖아. 하다못해 세리 마누라라도 있어 봐. 그게 어디게.” 공연히 흥분해서 눈을 번적이고 삿대질까지 했다. 그리곤 엄숙하게 덧붙였다. “어떡허든 우리도 한밑천 잡아 한번 잘 살아 봅시다.” 나는 울컥 징그러운 생각이 났다. 그리곤, 아아, 아아, 징그럽다고 생각했다.<sup>97)</sup>

산업화가 초래한 물질만능주의에 물든 건 비단 남편뿐이 아니다. 20여년 만에 만난 동창 친구들 역시 부끄러움은 다 잊어버린 전형적인 속물근성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특히 소녀시절 나처럼 부끄러움을 잘 뺏던 경희의 곱씹질만 남은, 허위식과도 같은 부끄러움은 나에게 실망과 안도라는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즉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진정한 부끄러움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을 가져온다. 한편 나와 비슷하게 부끄러움을 잘 뺏던 경희마저 속물적 근성에 물들어 부끄러움을 잃었다는 것은 오히려 나의 현 모습을 합리화하고 자기 위안할 수 있기에 안도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경희는 정숙한 여자가 못 들을 망측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얼굴을 곱게 붉히더니 “계집애두.” 하며 손을 입에 대고 웃었다. 덧니가 부끄러워 비웃된,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버릇은 이제 덧니의 매력까지를 계산하고 있어 세련된 포즈일 뿐이다. (중략) 그러나 부끄러움은 아니었다. 노련한 연기자처럼 미적 효과를 미리 충분히 계산한 아름다운 포즈일 뿐이었다. 부끄러움의 알맹이는 퇴화하고 곱씹질만이 포즈로 잔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sup>98)</sup>

그러나 징그러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 번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의 내면에 남편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할 줄 아는 부끄러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희의 부끄러움이 의도된 것임을 알고 실망하는 것 또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용적 상상력의 측면에서 남편과 옛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 내가 비판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볼

96) Ibid., p.238.

97) Ibid., pp.228~229.

98) Ibid., pp.241~242.

수 있다. 즉 나의 부끄러움은 완전히 말소된 것이 아니다. 다만 내면에 숨겨진 부끄러움과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이룬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느껴야 할 여러 감정 중 수치심은 반성과 함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의 표현이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로 만듦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방해하였고 이는 나아가 인간성 상실과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야기하였다. 인간관계에서 도덕 윤리보다 물질을 더욱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부끄러움 상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부끄러움을 되찾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 (2) 진정한 삶의 의미 자각

나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우연히 일본인 관광객과 그를 상대하는 관광 안내원을 마주한다. 일본 관광객들에게 ‘한국인 소매치기를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관광 안내원의 말은 나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 모멸감과 수치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나는 고통스럽게 찾아온 부끄러움의 통증을 감수했고 심지어 자랑을 느끼게 된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동안 모두가 잊고 있던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간 나의 삶에 국한되어 있던 개인적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사회적 부끄러움으로 확대된다. 이는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삶의 태도로 산업화 시대 물질주의에 경도됐던 삶을 각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펴러덩펴러덩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라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고. 아아,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sup>99)</sup>

99) Ibid., p.244.

산업화가 낳은 속물근성과 인간성 상실, 그리고 이러한 데 대한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 현실에 나는 드디어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통과 환희 속에서 각성하게 된다. 이러한 부끄러움과 각성은 앞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부끄러운 속물적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는 도덕과 윤리의 정신적 가치를 붕괴시켜 비인간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비인간화 현상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모두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건강한 자아를 상실하게 하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 형성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조용적 상상력을 통해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물질 탐욕의 허상과 삶의 방식, 인간 관계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부끄러움으로 확대되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간 본연의 주체의식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정체성 찾기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라 순응성, 소극성, 수동성 등으로 그 특질을 규정된 채 이에 합당한 여성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체가 아닌 남성의 타자로서 남성에게 종속되도록 장려되고 사회화되어 왔다. 여성은 남성이 자신보다 앞설 수 있도록 음지(陰地)에서 헌신적으로 돕거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며, 성적인 욕구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남성들 또한 남편과 자식을 위한 여성의 희생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을 부도덕하게 보고 더욱더 여성을 억압하려 들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여성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성이란 자기만이 갖는 고유의 것으로 ‘자기다움’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성 정체성의 대물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남편,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 뿌리를 둔 여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를 주체로 한 정체의를 형성하기 어렵다.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가정 내의 위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sup>100)</sup>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주체적 실존의식을 자각하고 얽매인 관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해야 한다.

이에 박완서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소외와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여성의 정체성을 새로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의 허상을 깨우쳐주고 나아가 생명에 대한 사랑과 포용을 담아내는 작품들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애를 이야기함으로써 생명주의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생명주의는 모든 인간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그 기저에는 인간존중사상이 바탕이 된다.

이를 반영하여 그의 소설 『꿈꾸는 인큐베이터』는 남아선호사상, 남녀차별 풍조와 같은 봉건적 가치관에 젖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 각성이 필요함을 보다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해산바가지』는 이러한 남아선호사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성애적인 생명에의 갈구, 생명존중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나는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 우연히 딸만 가졌지만 행복해하는 남자를 만나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다. 나는 남자의 행복을 거짓이라 느끼고 남아 선호를 주장하며 남자와 논전을 펼친다. 그러나 남자는 남아선호사상의 허상을 논리정연하게 비판하고 나는 남자의 말에 임신중절의 경험을 떠올린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생산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해산바가지』에서 나는 친한 친구의 며느리가 딸을 낳아 속상해하자 남아선호사상에 혐오를 느끼며 시어머니를 회상한다. 과부였던 시어머니는 자기 나름의 확고한 사랑법을 가지고 있는 생의 의욕에 충만해 있던 분이다. 그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정신과 치료까지

100)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p.14~18 참조.

받게 된다.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러 가게 되는데 우연히 잘생긴 박을 보고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삶에 대한 믿음을 느끼게 된다. 해산바가지는 아들, 딸 구별 없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 시어머니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나는 비로소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신 시어머니에게 경외감을 느끼고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게 된다. 그 이후 나는 효부인척 하는 위선 없이 진심을 다해 부양하였고 시어머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임종한다.

### (1) 남아선호사상과 정체성 혼란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나는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서 누구나 그렇듯 남아선호사상에 물들어 아들을 낳았다는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 “딸 둘을 다 합쳐도 아들 하나만큼 나를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sup>101)</sup>는 감정 속에 아들의 존재감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이면에는 나조차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아들을 낳기 위해 여자로 판명 난 태아를 낙태시킨 이후 친밀도를 유지하던 시댁이나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모했고,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과도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순간순간 “아들의 떡살을 잡고 내가 널 어떻게 낳아 기른 자식인 줄 아느냐고 한바탕 악다구니를 치고 싶은 욕망”<sup>102)</sup>을 느끼며 소외되어 간다. 이것은 무의식중 강박적으로 뭍 찾아 헤매는 불안감으로 드러난다. 자기도 모르게 부부간의 증오만이 가득 찬 영화에 빠져든다던가, 뭍 찾아 헤매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남편의 친절에 오히려 구역질이 날 정도의 적의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나의 삶은 아내나 어머니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 동기가 되는 애정이 사라진 것으로 소외된 관계의 극단을 보여주며 이는 위기의 징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단지 막연한 불안감으로만 그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sup>103)</sup>

남편이 출장 가고 나서 빌려 온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그 동안 서너 번은 본 것 같다. (중략) 증오의 클라이맥스는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용서니 화해니 하는 거짓된 정서는 양념으로 쓰려 해도 찾아지지 않는다. 나는 마치 자웅을 붙은 짐승이

101)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3, p.270.

102) Ibid., p.262.

103) 이선미(2004), op. cit., p.277.

이유도 체면도 없이 다만 어쩔 수 없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듯이 참담하게 혈떡이며 그들의 파국을 쫓는다. 쫓고 쫓기던 부부가 마침내 천장의 휘황한 샹들리에에 같이 매달렸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서 죽는 장면까지 봐야만 비로소 열병처럼 옹아 붙은 증오로부터 놓여나게 된다.<sup>104)</sup>

그러던 중 나는 조카의 재롱잔치에 갔다가 우연히 딸만 가졌음에도 행복해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나는 그 남자의 행복을 거짓이라 생각하며 그 행복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아들은 어느 집이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로, 지난 날 나의 낙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남성 존재의 당위성을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남자를 상대로 남성 우월에 대한 주장을 펼친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조차 가리지 않는 남아선호사상은 한국 여성들에게 가해진 보편적인 사고로 우리는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은 아니실 걸요. 남 다 있는 아들 자기만 없어도 보셔요. 얼마나 비참하고 섭섭한가. 물건이면 당장 훔치고 싶다는 옛말이 조금도 그르지 않죠. 하긴 요새처럼 편리한 세상에서야 훔칠 것까지야 있나요, 뭐. 수단 방법 안가리게 되는 거죠, 그까아짓 거.”(중략)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죠? 내 말이 맞죠? 아들이 없다는 건 결혼 생활의 행복의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sup>105)</sup>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해산바가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산바가지』의 나는 며느리가 딸을 낳아 속상해하는 친구 부탁으로 며느리의 병문안에 동행한다. 2인실 병실에서 친구 며느리와 달리 아들을 낳은 다른 산모는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들 탄생의 기쁨을 만끽한다. 산모의 지인들은 소위 지식인이자 사회지도층이라 일컫는 대학 교수들로 이들조차 여성의 무용론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말 딸 낳을 건 아냐. 헛수고 중에도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 걸.” “헛수고면 좋게. 헛수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딸이 왜 아무것도 안 남니? 딸이 또 딸 낳

104) 박완서(2013), op. cit., pp.265~266.

105) Ibid., pp.256~257.

을까봐 까지 전전공공해야 할 생각을 하면 악순환이야.”(중략) “자넨 모를 걸세, 그 공주님이에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된 남자의 속이 얼마나 철썩 내려앉 나를. 그 아찔한 실망을 모르면 가히 복 받은 남자라 할지어다.”(중략) “결국 아들은 이기는 거고 딸은 지는 거라는 남성우위이구먼.”(중략) “습관적으로도 차를 마구 몰다가도 아서라, 우리 아들을 위해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살 몰면서 느끼는 벽찬 기쁨,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정도의 기쁨은 선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sup>106)</sup>

우리는 위 두 작품의 대화를 통해 인식적 상상력으로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고귀한 탄생의 현장에서 딸은 축복이 아닌 외면과 부정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알 수 있다. 『해산바가지』에서 나의 친구 역시 딸을 낳고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매몰차게 요구한다. 같은 여성이면서 여성을 부정하는 남아선호사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사회 규범이다. 그러나 여성의 존재가 부정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여성들은 적극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동조자로서 남아선호사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사상은 최소한의 모성을 무시한 채 급기야 여아 살해라는 극단적인 현상까지 낳은 것이다. 이러한 남성에 대한 집착과 생명경시는 왜곡된 사상이 낳은 인간성 상실로 조용적 상상력을 통해 비판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꿈꾸는 인큐베이터』의 남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여성만이 지니는 특수성을 인정해야함을, 남아선호사상이 자연의 조화인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은 나아가 여성의 상품화를 낳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임신중절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남성 스스로 남아선호사상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우월주의를 여성이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의 모순에 정면으로 맞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남자를 내세운 것이다. 이런 신중 남성의 등장은 여성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봉건적 관습의 허상에 대한 깨달음과 내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106) 박완서, 『해산바가지』, 『해산바가지』, 문학동네, 1999, pp.185~187.



“하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실패할 리 없는 방법이라는 게 여아(女兒) 살해를 전제로 했으니깐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감쪽같이 태아가 단지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중략) 남자애를 뱌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과학의 발달이라는 거구요. (중략) 하나같이 남편이 호흠이 아주 잘 맞는 공범자던데요.”<sup>107)</sup>

계속되는 남자의 논리정연한 반박과 ‘여아 살해’에 대한 비난은 나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감으로 느끼던 위기감의 정체를 속속들이 발견하게 만든다. 아들을 낳음으로써 후천적 남성 성기를 얻었고, 남자가 된 것처럼 당당해졌지만 남자와의 논전을 통해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남성의 부차적 존재 즉 남성이 원하는 남성을 낳아야만 하는 인큐베이터로 여겼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다. 나는 남자에게 내 치부를 들킨 것처럼 자괴감을 느낀다. 마침내 나는 줄곧 나를 괴롭히던 계름칙한 느낌의 실체를 알게 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신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공범자와 함께 산다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즉 조응적 상상력 관점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불안감의 실체를 비로소 인식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길 양쪽에 잘린 동산의 시뻘건 단애가 보인다. 지질이 진흙인가보다. 흠빛이 섬뜩하도록 싱싱하다. 단애라고 하지만 급한 낭떠러지는 아니고 길을 향해 비스듬히 깎아 내렸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 꼭 두 무릎을 세우고 가랑이를 벌리고 누워 있는 여자의 사타구니를 보는 것 같다. 머리도 동체도 생략하고 허벅지와 사타구니만 강조된 여자, 그리고 그 사타구니는 온통 피로 범벅이 돼 있다. (중략) 길을 뚫기 위해 잘린 산의 단면이 벌린 가랑이처럼 보이자 나는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내가 거기 옮겨 붙은 건지 그게 나한테 옮겨 붙은 건지 그 끔찍한 꼴과 나 자신을 분간할 수가 없다.<sup>108)</sup>

107) 박완서(2013), op. cit., pp.282~283.

108) Ibid., pp.285~286.



그리고 나는 운전 중 산의 시뻘건 단애를 보며 여자의 사타구니를 연상하고 그 그 피범벅이 되어 있는 끔찍한 사타구니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란스러운 나는 차 사고를 내고 다른 운전자들의 욕을 들으며 결국 나의 삶이 한낱 아들을 낳기 위한 인큐베이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상실감 속에서 자기 존재의 부재를 깨닫는다. 딸의 생명을 냉정히 지워버린 끝에 얻은 아들은 가부장적 가정 내에서 여성이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리만족적인 수단의 결과였기 때문에 자기 삶의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여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남녀차별, 남아선호의 실태를 여성들이 오히려 동조함으로써 여성들은 스스로를 아들을 낳는 인큐베이터로 전락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들만이 갖는 성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전근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성들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순화되며 남아선호사상을 대물림 받고 주입받아왔다.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보하고 건강한 자아의식을 형성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즉 태어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 받은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정체성에 편승하여 아들을 낳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삶을 반추해볼 때 원인 모를 불안감과 자기 존재의 가치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 아들을 낳는 것이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여성의 정체성이라 규정되었던 삶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비로소 아들을 낳는 인큐베이터같은 삶 속에 진정한 자기의 삶은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삶의 모순을 깨닫는 순간 중년 여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식화 과정을 통해 중년 여성들은 정체성을 찾고 삶의 진정성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 (2) 생명주의적 인식과 정체성 찾기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스스로 인큐베이터가 됨을 주저하지 않았던 나는 남아선호사상의 허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무거운 ‘임을 인’ 어머니의 ‘당당한’ 걸음걸이를 모범으로 생각한다. 이 생각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구체성에 비해 극히 추상적인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됨

을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함’의 가능성을 찾는 것만으로도 나의 의식에는 충분한 전환의 계기가 된다.<sup>109)</sup> 즉 작가는 여성들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생명경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 스스로 내적 각성과 자의식 변화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지에서 본 매력적으로 걷는 법에 의하면 정수리와 양쪽 귀를 위에서 수직으로 땡기는 것처럼 머리를 곧바로 치켜들고 걸으라고 돼 있다. 지금 입을 인 여인의 자세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머리에서 무거운 게 짝어 누름으로써 도리어 뺏뺏이 세울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을 나는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직선이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다 못해 존엄한 걸음걸이었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다. 친정어머니는 남편이란 머리에 인 입과 같은 것이라는 소리를 자주 했었다. 나는 내가 본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관계로 미루어 그 소리를 남편은 아내를 어떡하든 짝어 누르고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존재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거기 덧붙여 그 짝어 누르는 존재에 의해서만 풀리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는 여자 팔자를 빚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sup>110)</sup>

우리는 일상 속에 작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나에서 벗어나 자기를 오해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을 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감정의 주체에게 분명하게 의식되지 않고 강박증으로 드러난다. 나 역시 남자로부터 기존의 가치관인 남아선호에 대해 논박당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강박적으로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나 결국 시뻘건 단애를 보며 아들을 낳기 위한 인큐베이터화 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 정체를 의식함으로써 불안의 원인과 맞서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가져온 자기 삶의 위기와 맞서는 ‘당당함’의 의식을 되찾는다. 불안이라는 막연하고 위축된 정서에서 출발하여 당당하게 그 원인과 맞섬으로써 위기를 객관적으로

109) 이지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pp.16~17.

110) 박완서(2013), op. cit., p.300.

성찰하는 자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용감하고 치열하게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끝까지 해명하려 했던 것처럼, 그만큼 진지하게 남아선호 이데올로기에 묶인 자신의 삶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여성들이 앓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 속에서 극복의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다. 이는 작가가 제시하고자 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모습을 발견하는 초월적 상상력이 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누르는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주눅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봉건적 가치관에 순응하여 인큐베이터됨을 승낙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과 정면으로 정직하게 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sup>111)</sup>

한편 『꿈꾸는 인큐베이터』가 남아선호사상과 생명경시에 대한 비판,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다루었다면 『해산바가지』의 시어머니는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여성상을 구현한다. 시어머니는 해산바가지를 신령한 물건인 양 다루고, 성별 상관없이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복을 기원한다. 모성적 본능에 의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또 생명의 근원인 산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대접을 아는 분이다. 딸만 내리 낳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죄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던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면면히 내려오는 생명존중 정신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경건한 의식은 모성에서 모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명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켕겼다. (중략)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111) 이선미(2004), op. cit., pp.266~280 참조.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중략)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회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중략)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sup>112)</sup>

이러한 시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포용과 경건한 태도는 나의 행동을 반성하게 한다. 치매로 인한 시어머니의 추악함과 내가 감당해야하는 고통만 생각하느라 과거에 시어머니가 베풀었던 소중한 사랑과 그 정신을 망각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접을 베풀었던 시어머니 역시 온전히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즉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성별을 초월한 생명존중사상과 그 사랑은 순환되어 다시 내가 시어머니를 포용해야 한다. 이는 모성에서 모성으로 이어지고 순환되는 사랑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확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인큐베이터』, 『해산바가지』 두 작품에서 인식적 상상력을 통해 남아선호사상이라는 봉건적 이념이 불러온 비인간화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를 선호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채 임신중절 수술이 자행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산모 대접도 받지 못하는 실태는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존재 부정을 여성이 자행하고 있다는 데 그 모순과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조용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생명이 경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전근대의 봉건적 사고에 따른 남아선호사상이 너무도 깊게 뿌리내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삶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물질에 둬으로써 생명경시 풍조가 생겨났음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월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주체적 실존의식을 자각하고 모성의 특성인 포용과 이해의 정신으로 생명 자체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성의 특수성으로

112) 박완서(1999), op. cit., pp.204~205.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여성으로부터 잉태된 태아는 그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모성적 생명주의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즉 생명의 존엄을 깨닫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 소외 없이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진정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 관계 속에서 위치를 확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켜왔던 여성들이 온전히 나를 주체로 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내부에서 ‘자기다움’을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특정한 성별의 아들을 낳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아기를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여성들의 특수성과 모성적 생명주의가 여성을 논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체성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함이다.

### Ⅲ. 자전적 여성문학으로서의 의의

#### 1. 여성문학으로서의 의미

여성문학은 여성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여성의 억압된 삶을 문제 삼거나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추구하는 소설로 규정지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여성문학을 다시 보고 새롭게 읽으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던 여성들의 체험을 문학화하고 사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쉽게 규정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적이다. 진정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정체성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변화가능하며 관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여성성의 개념 중에서 어떠한 여성성을 여성 본래의 특질로 간주하든지간에 그 여성성의 특질을 토대로 여성문학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여성문학은 여성의 삶을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여성의 자아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는 그동안 남성의 타자이자 주변인물로 존재했던 여성으로부터 벗어나 남성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sup>113)</sup>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간해방이란 비전속에서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게 힘을 모으고 방향을 세우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에 와서야 여성운동은 하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그 변모를 일신하였으며, 그 궁극적 목표를 여성의 인간화,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인간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체제변혁과 대안문화의 창출에 두게 된다. 즉 여성운동은 단지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이라는 틀을 벗어나 그들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운동의 주체였던 노동자와 지식층

113) 김미현(1996), op. cit., pp.30~35.

여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몰사회적이며 몰역사적인 존재로 평가되어 여성들로부터 소외되어온 중산층 가정주부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열린 마당’으로 펼쳐 지기에 이른다. 마침 이러한 시점에, 중산층 고학력 주부의 삶을 여성해방적 관점에 서서 풀어낸 박완서의 소설들이 세상에 나왔다.<sup>114)</sup>

구체적으로 박완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건적 가부장제의 질곡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주의적 사회에서, 핵가족화 과정에서 남녀관계가 어떻게 변질되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해내어 주고 있다. 역할에 서로 얽매어 서로를 괴롭히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부, 가뜩이나 피상적인 부부관계를 더욱 피상적인 것으로 몰고가는 부부간의 성, 동시대를 살면서 실은 각기 봉건과 현대를 사는 모녀간의 복잡한 심리, 자아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들과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무수한 소극적 저항의 몸짓들, 이 와중에 표류하는 외로운 남편들, 그리고 여자들의 권리 주장 앞에 더욱 공고해지는 남자들의 공모의식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박완서는 그동안 조용히 여성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sup>115)</sup>

뿐만 아니라 박완서는 여성의 전쟁 체험에 주목하면서 6·25 전쟁과 여성 삶의 연관성을 찾아낸다.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전쟁은 수많은 남성의 생명을 빼앗았다. 여성은 이러한 끔찍한 죽음의 현장을 수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뗏뗏치 못한 죽음으로 통곡도 못하고 말없이 삼켜야만 했다. 이로써 여성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고 그것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하였다. 박완서는 여성의 전쟁체험을 통해 한민족의 상처와 전쟁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여성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기억과 여성의 삶을 복원한다.

그리고 박완서의 작품들은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에 대한 성별 특유의 대응 방식 가운데 특히 가부장제로부터 소외된 탈중심화된 타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탁월하게 형상화한다. 그녀의 작품은 가부장제의 지배, 억압, 착취의 양상이 소비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계급의 문제 등과 착종되면서 근대성의 모순과 양가성이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114) 이태동,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18 박완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pp.203-204.

115) 조혜정,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 권영민 외(1991), op. cit., p.176.



삶에서 여성 해방 운동이 여성 억압의 가장 중심 주제라고 규정한 정치적 문제들-성별 노동 분업, 피임과 낙태, 성의 통제, 교육 혜택,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권력 등-이 작품에 담겨져 있다.<sup>116)</sup>

또한 그녀는 서술 시점에 있어 극화된 인물 화자인 고백적 서술자를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서술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주관적 담론으로 비판될 수도 있는 박완서의 서술 담론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필요한 자기 긍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17)</sup>

이처럼 박완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인물이 자아를 각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관찰하였고 남성으로부터 종속되지 않은 건강한 여성을 그려내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른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등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거듭하였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은 여성문학으로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박완서의 여성문학은 남성문학 위주의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보여준다는 데 교육적 가치 또한 찾을 수 있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고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런 여성인물의 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은 동일시 또는 대리체험을 경험하고 자아 형성은 물론 인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완서가 꾸준히 그려낸 여성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시대에 따른 여성상들의 변화 양상과 그 속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오늘날 여성상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여성상 추구는 물론 진정한 삶의 의미 발견 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즉 여학생들에게는 삶에 대한 전범이, 남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될 것이다.

116) , 근대주체, 소비자본주의, 여성의 욕망-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를 중심으로, 김해옥 외,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p.46.

117) 정미숙(2002), op. cit., p.251.



## 2. 자전소설로서의 가치

자전적(自傳的) 소설은 자기의 생애나 그 일부를 주요 소재로 쓴 소설로써 이 때 소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대로 꾸며서 기술하며, 3인칭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전기’나 ‘자서전’과는 다르다. 자전적 소설은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과 사회적 환경, 물리적인 일상사 등을 세밀하게 다루거나 때로는 장황하게 다룸으로써 방대한 양을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적인 경험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조작하기도 한다.<sup>118)</sup>

박완서는 타계할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소설의 여러 부분에 드러냄으로써 민족의 역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당시 생활 모습을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1931년에서부터 시작되는 박완서 개인의 역사는 가족사, 한국사와 긴밀하게 조응을 이루면서 작품 안에서 지속돼 왔다. 작가 자신이 살아온 시·공간은 자전소설의 핵심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형성하고 주변 인물들의 체험까지 확대된다.<sup>119)</sup> 그녀는 6·25 전쟁과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신주의가 순수한 인간성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하고, 또 억압하고 있는가를 체험기에 가까울 정도로 생생히 그려 역사적인 내면구조를 밝혔다. 이때 그녀의 소설 무대는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 자전적인 색채가 짙은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sup>120)</sup>

그녀는 특히 전쟁과 분단에 대한 자기의 체험을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시킨 작품<sup>121)</sup>들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성을 띤 작품들과는 달리 그녀는 오빠의 죽음과 남은 가족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광폭성을 증언한다.<sup>122)</sup> 때문에 비록 전쟁에 대한 판단이 가족사에 머무름

118) 신회천 외 편저, 『문학용어사전』, 청어, 2001, p.475.

119) 배기성,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전쟁 및 분단체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p.98.

120) 이태동(1998), op. cit., p.8.

121) 자전소설 중 전쟁 체험이 드러난 작품과 분단 체험이 드러난 소설은 다음의 9작품이다.

『나뭇(1970)』,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1972)』,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와 위커(1975)』, 『엄마의 말뚝(1982)』, 『목마른 계절(1987)』,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122) 안정은, 「박완서 소설 연구 : 자전적 여성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75.

으로써 미시적이고 전쟁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나 전쟁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전쟁과 분단은 그 비인간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였다.

김윤식은 박완서 소설의 창작기법을 가리켜 ‘기억에 의한 글쓰기’라 평가하며, 오빠의 죽음으로 겪었던 전쟁의 비인간적인 실상을 은폐하고 살아온 기억과 연관시켜 ‘역사의식과 별레의식 한 가운데’에 박완서의 소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박완서의 등단 장편소설인 『나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박완서 역시 ‘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형상화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작가 개인의 유의미한 체험을 소설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소설은 진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그녀는 많은 작품에서 1인칭 여성 화자를 통한 자전적 서술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여성 화자가 가지는 경험과 안목의 협소함으로 인해 세계의 총체적 모습을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나, 동시에 개인의 ‘자서전적인 형식’을 통하여 개체와 개별적 삶의 표현을 통한 개체의 총체성을 표현한다는 서사 정신에의 충실한 구가이기도 하다.<sup>123)</sup>

이처럼 박완서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고 서술함으로써 작품의 진정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체험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며 보편성을 얻는다. 이에 그녀의 자전적 소설은 진정성과 허구성을 적절히 접합시킴으로써 모두의 공감을 얻어냈다는 데 자전적 소설로서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를 지녔다 할 수 있다.

더불어 박완서의 자전소설은 교육현장에서 자전소설을 활용한 창작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박완서의 개인적 경험이 소설화되는 과정을 확인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유의미한 경험을 떠올려 본다. 이는 소설의 주요 스토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계기가 됨으로써 학습자들의 인성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그리고 스토리 창작 과정에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시점, 서술방식 등도 고려하게 됨으로써 소설의 여러 기법과 장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

123) 정미숙(2002), op. cit., pp.239~240.

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더해 한 편의 글로 구성해 냄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화해낸 데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쉽게 유의미한 경험이나 스토리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 학생이 같은 경험을 공유한 학교 내 활동-수학여행, 체육대회, 시험, 학급 체험 등-을 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경험 속에 각자만의 상상력을 더해 자전적 소설을 쓰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보는 활동은 효과적인 문학 교육이 될 수 있다. 같은 제재를 가지고 서로 달리 서술해 낸 소설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고 시점, 배경, 인물 구성들 또한 비교해봄으로써 자전적 소설 쓰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박완서는 자신의 체험을 담담히 서술해 냄으로써 그 누구보다 소설의 진실성과 허구성, 여성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획득해낸 작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자전소설은 학습자들에게 이론과 실재를 병행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 IV. 결론

이 연구는 필자가 학교 현장에서 문학교육을 하며 학습자들이 인물을 통한 간접 체험 및 자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며 착안하였다. 학습자들에 인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판단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비중이 많지 않은 여성상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박완서는 여성상을 잘 표현한 여성작가로 그의 작품은 교과서에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작품 6편 중 장편소설은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모녀가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품들이었다. 단편소설은 현대사회의 속물적 근성이나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문제점을 중년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작품들이었다. 이에 여성상을 전쟁 체험 세대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 나누어 어머니와 딸, 중년 여성이 각각 처한 현실과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모색해 나가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작품을 인식, 조응, 초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석해 바람직한 삶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문학교육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II장의 1. 전쟁 체험을 공유한 모녀 연구에서는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 2』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박완서의 자전적인 성격이 짙은 소설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오빠의 죽음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대처하는 모녀의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 그 시대의 여성상을 파악하였다. 전쟁의 폭격 속에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있어 살아생전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이자 깊은 원한이 된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두고 대처하는 삶의 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딸이나 역시 오빠의 죽음을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어머니의 태도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먼저 『나목』의 어머니는 여성으로서의 실존적 주체의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가부장적 질서에 종속된 수동적인 여성상의 모습이다. 즉 신앙과도 같던 아들이 죽

자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해 버린다. 한편 어머니로부터 오빠 대신 살아남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딸 이경은 정체성의 파괴와 함께 삶의 욕망에 혼돈을 갖는다. 옥희도와 사랑의 통행 시도한 정체성 찾기 역시 실패하고 미군과의 하룻밤을 선택하는데 자기 파멸의 순간 삶에 대한 욕망을 찾게 된다. 오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죄책감에 있음을 인식하고 내면에 있는 살고자 하는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 옥희도의 유작전에서 예전에 봤던 고목이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나목임을 깨닫고 삶의 정체성을 완성한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남편의 부재로 인해 부성의 역할까지 해내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온다. 아들과 딸을 서울로 입성하여 각각 성공시키기 위해 억척 모성과 강한 부성을 적절히 공존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이다. 딸을 신여성으로 만듦으로써 대리만족의 욕망을 꿈꾸기도 하는 근대 지향적 여성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에게 이양하여 아들의 존재를 신앙과 같이 여기는 모습은 여전히 봉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아들이 희생양이 되자 어머니의 삶 역시 흔들리는 부성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

한편 딸인 나는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서울로 입성한 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유년기에 겪은 환경의 변화와 문 밖, 문 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 실체를 알 수 없는 신여성에 대한 강요는 정체성 형성에 방해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 허상에 대한 경험, 오빠의 황폐화는 여전히 나의 정체성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훗날 이 모든 것을 글로 증언해 내야한다는 책무를 인식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다.

『엄마의 말뚝 2』는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며 원한임을 어머니의 발작과 절규를 통해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아들의 뺏겨 루를 북녘 바다에 뿌렸듯이 자신도 그리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죽어서도 아들과 함께하기를, 또 아들의 죽음을 가져 온 분단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죽은 아들에 기인하며 뿌리 깊은 원한은 어머니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 역시 일상을 통해 오빠의 죽음을 애써 덮으며 살지만 어머니의 발작을 통해 오빠에 대한 어머니의 원한과 상처를 마주하고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훗날 화장에 대한 약속을 하며 어머니의 한을 계승한다.

II장의 2. 산업화 시대의 중년 여성에서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꿈꾸는 인큐베이터』, 『해산바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의 속물적인 모습에 경종을 울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의 나는 전쟁 이후 딸에게 양색시가 되길 요구하며 울부짖는 어머니로 인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라 생각하며 정체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각각 무식, 위선, 탐욕으로 대변되는 남편들과 세 번의 결혼, 부끄러움조차 계산적인 연기가 되어버린 친구 경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이 시대에 인간의 진정성은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연히 관광객들에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듣게 되고 잃어버렸던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산업화 시대에 길들여진 속물 근성과 허위 의식 속에 정체성조차 상실했던 나는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부끄러움을 느낌으로써 앞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진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 것이다.

『꿈꾸는 인큐베이터』, 『해산바가지』는 산업화 시대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인간성 상실, 생명경시 풍조 등이 만연하고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딸의 탄생은 축복받지 못하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다. 태어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 받은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정체성에 편승하여 자신들을 아들을 낳는 인큐베이터의 삶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봉건적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작가는 『해산바가지』의 시 어머니를 통해 바람직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명을 보듬고 포용하는 것은 모성의 발로로 결국 여성의 몫이다.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실존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외경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완서 소설 속의 여성들은 당시 시대와 처한 상황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며 궁극적으로 정체성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발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6편의 작품 이외의 작품에서도 여성들은 일상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또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 박완서는 그 누구

보다 여성을 자주적으로 생각할 힘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문학적 업적을 남긴 박완서 소설을 다시 여성문학으로서의 의미, 자전 소설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쟁에 대한 기술은 남겨진 여성들의 비극과 전쟁이 가져온 삶의 황폐화를 담담히 그려냄으로써 전쟁의 실상을 더욱 실감나고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삶에 주목하여 각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와 딸, 중년 여성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박완서의 이러한 자전적 여성문학으로서의 의의를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가치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여성상에 대한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여성상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려낸 박완서 작품에 대한 교육적 연구 역시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나목』, 작가정신, 1990.
- \_\_\_\_\_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2.
- \_\_\_\_\_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3.
- \_\_\_\_\_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한양출판, 1994.
- \_\_\_\_\_ 『꿈꾸는 인큐베이터』,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3.
- \_\_\_\_\_ 『해산바가지』, 『해산바가지』, 문학동네, 1999.

### 2. 단행본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 권영민 외, 『박완서論』, 삼인행, 1991.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김해옥 외, 『현대소설의 여성성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 신희천 외 편저, 『문학용어사전』, 청어, 2001.
-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 이경호, 권명아 역, 『박완서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 이광호, 『위반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2001.
- 이선미, 『박완서 소설연구』, 깊은샘, 2004.
- 이태동,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18 박완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정미숙, 『한국여성소설연구입문』, 태학사, 2002.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3. 국내학술지 논문

- 박철수,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 17권 제2호, 한국주거학회, 2006,4.
- 배경열, 「여성의 정체성 찾기-박완서 작품론」, 한국학논집(제34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 안남연, 「박완서 소설의 여성성」, 『한국문예비평연구(제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8.
- 임옥희, 「이야기꾼 박완서의 삶의 지평 넓히기」, 작가세계(통권 제47호), 2000, 11.
-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박완서문학의 6·25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세계(통권 제8호), 1991.

### 4. 학위 논문

- 김승미, 「박완서 장편소설 교육 연구 방법-『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 김지영, 「박완서 소설의 문학교육적 연구-1970~1980년대 작품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박진화, 「박완서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엄마의 말뚝』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박혜림, 「박완서 소설의 문학치유 가능성 고찰-전쟁체험 소재의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 배기성,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전쟁 및 분단체험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신은정, 「박완서 소설 속에 나타난 ‘어머니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안정은, 「박완서 소설 연구:자전적 여성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은하, 「박완서 소설 연구-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이지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이환석, 「박완서 소설의 현실 극복의식 연구-초기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정은비,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정해진, 「박완서 소설 연구-전쟁 체험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조인순, 「박완서 체험의 글쓰기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 최지선, 「박완서 장편소설 『나목』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한상희, 「박완서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Abstract>

## An Analysis of Woman's Image in Park Wanseo's Novels

Ku, E0-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research study originates from the observation of the vicarious experiences and formation of personal values that can occur through characters in a literary work. Also the importance of these characters within literary works and the need to analyze female characters, which are relatively less prominent in the textbooks of high school curriculums, were realized. Therefore the researcher focused on analyzing the image of women manifested in the female literature works of Park Wanseo, which take up a large part of the education curriculum.

Women in the novels of Park Wanseo endlessly reflect upon themselves, albeit using different methods depending on time period and situation, and these women secure an independent consciousness of existence while showing a genuine desire for their livelihood. Therefore Park Wanseo materialized the will of women to think and act independently more than any other author with a firm perception on the consciousness of women as a gender conscious existence.

In this research, the image of the women expressed by the author was again divided into the image of mothers and daughters and middle age

women, to examine the tension and paradoxes and ideal life etc. these women experienced in an age of war and in an age of industrialization. And by regarding the framework of analysis of the words as perception, agreement and transcendental imagination to expand the scope of analysis and by presented an ideal life, this research 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scholars from a literary educational point of view.

Also the literary meaning of the novels of Park Wanseo were examined by categorizing them into their meanings as female literature and their value as autobiographical literature. The description of war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calmly expresses the desolateness of the life of women that is brought on by tragedy and war, and these work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vividly and realistically portray the reality of war. Above all it is also notable that by focusing on the lives of women, the lives of mothers and daughters and the lives of middle age women living in each time period were realistically described.

From these perspectives, the image of women in the novels of Park Wanseo have meaning and value in that they teach a proper perception of the image of women to adolescent readers. Also the examination of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image of women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can have the positive effect of expanding the perspective on women. Also based on establishing positiv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on the image of women, by vicariously experiencing the situations of the times with the characters, this research is valuable in that it can make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function of the literary communication process possible.